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 근로자



5호 5월 1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61

# 근로자

제 5 호 (186)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잡 지

1961년 5월 15일


차 례

# 화학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비날론 공장 준공을 경축하면서 5월의 명절을 기념하는
함흥시 군중 대회에서 한 연설

## 김 일 성

친애하는 비날론 공장 건설자들과 함흥 지구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 동지들!

함흥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나라 화학 공업의 중심지인 함흥에서 비날론 공장의 준공을 보게 된 경사와 함께 5월의 명절을 기념합니다.

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자기의 창조적 로력 성과를 시위하면서 5월의 명절을 기념하고 있는 비날론 공장 건설자들과 함흥 지구 전체 근로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우렁찬 박수, 환호 오래 계속)

조선 인민은 5개년 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한 높은 긍지를 안고 금년부터 7개년 계획의 새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들어 섰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과 인민이 일심 전력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인 민족 경제의 확고한 토대가 구축되였으며 나라의 만년 대계를 위한 웅대한 구상들이 착착 실현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중공업에 기초하여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복잡한 현대적 기계 설비와 대규모적인 공장들을 생산하고 건설할 수 있게 되였으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기 위한 방대한 사업들을 혁명적으로 전개

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농촌 경리 기계화의 력사적 과업이 성과 있게 수행되고 있으며 100만 정보의 토지를 개간하여 농경지와 과수원과 상전을 대대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온 강토를 문'자 그대로 백과 무르익고 오곡이 유족한 땅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대자연 개조 사업이 착수되였습니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명이 성과 있게 수행됨으로써 기술 령역에서 커다란 진보가 달성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온갖 착취에서 해방시키고 나아가서는 그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시키며 이 땅에 근로자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려고 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리상은 우리 당에 의하여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환호)

과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인민 경제 발전에서 절실한 기술적 문제들이 성과 있게 해결되여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보건, 문학 예술에서도 계속 큰 전변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력사적으로 물려 받은 락후성을 청산하고 조국을 문명하고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키는 위대한 변혁이 진행되고 있으며 나라의 모든 곳에 창조와 혁신의 정열이 끓어 넘치고 있습니다.

전체 인민은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굳게 뭉쳐 기세 충천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정치 도덕적 통일은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였으며 그 정신적 풍모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 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일하며 배우며 즐겁게 사는 근로자들의 화목하고도 단란한 가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악전 고투하여 마련한 모든 밑천과 근로자들의 창조적 열성에 의하여 오늘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가고 있으며 만사가 다 잘 되여 가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들과 시민 여러분!

함흥 지구와 함남도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대의 하나입니다.

전쟁으로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함흥 지구에는 당의 정확한 정책과 근로자들의 애국적인 로력 투쟁에 의하여 전후 짧은 기간 내에 흥남 비료 공장과 본궁 화학 공장과 같은 대규모의 공장을 비롯하여 흥남 제련소, 흥남 17호 공장, 흥남 제약 공장들이 완전히 복구 확장되였습니다.

또한 흥남 질안 공장과 본궁 염료 공장이 새로 건설되였으며 년 6,000톤 생산



능력의 염화 비닐 공장이 불과 반 년 어간에 건설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환호)

지난 날 부속품을 가공하는 공장이던 룡성 기계 공장이 오늘은 현대적인 대형 설비를 제작하는 대기계 공장으로 발전하였으며 장진강, 허천강, 부전강 발전소들이 다 복구 확장되여 우리 나라 동부 지방의 커다란 동력 기지로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 유색 금속 광물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룡양, 검덕 광산들이 복구 확장되였으며 단천 마그네샤 공장이 확장되였습니다.

그리고 흥상 요업 공장을 비롯한 함흥 건구 공장, 함흥 가구 공장, 함흥 콩크리트 공장 등 많은 건설 건재 공장들이 새로 건설되였습니다.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 회의 이후 함남도에서는 옥수수 종합 가공 공장, 종합 기계 공장, 함흥 농기계 공장을 비롯한 150 여개의 지방 공업 기업소들이 새로 창설되였으며 그 생산액은 전쟁 전에 비하여 16배 이상으로 장성하였습니다.

지난 해 도내 공업 총 생산액은 전쟁 전에 비하여 약 4배로 장성하였습니다.

도시 건설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함흥시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현대적인 대도시로 건설되였으며 함흥과 각 군 소재지들과 공장 구역들은 완전히 새로운 면모로 일신되였습니다.

농촌 경리에서도 치산 치수 사업이 잘 진행되고 농업 생산이 현저히 장성하였으며 수산업에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 문화, 보건 사업도 급속히 발전하였습니다.

흥남 비료 공장 병원 일'군들과 함흥 의대 병원 일'군들은 치료 예방 사업에서 당의 의료 일'군의 고상한 풍모를 보여 주었습니다. 함흥 지구와 함남도 내 근로자들은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환호)

나는 이 뜻 깊은 5월의 명절을 같이 지내면서 전체 함흥 시민들과 함남도 내 전체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들과 전체 공민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영예를 드립니다. (우렁찬 박수, 환호)

그리고 지난 기간 함흥시 건설과 이 지구에서 일련의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 건설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독일 기술자들과 쏘련, 체코슬로바키야, 웽그리야를 비롯한 형제 나라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렁찬 박수, 환호)

동지들!

함흥 지구 근로자들은 전국의 지원 하에 세계 일등급의 비날론 공장을 단기간 내에 건설함으로써 전체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 주었으며 그들의 로력적 열정을 무한히 고무하였습니다.

비날론 공장 건설에 동원된 과학자, 기술자들과 전체 로동자들은 《모든 것을 비날론 공장 건설에로!》라는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무비의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였습니다.

총 면적 50만 평방메터의 부지에 자리잡고 일어 선 비날론 공장은 큰 건물만 하여도 건평 4만 평방메터에 높이 30메터인 방사 직장을 비롯하여 30 여개에 달합니다. 이 공장에는 근 1만 톤에 달하는 1만 5,000 여개의 기계 설비와 장치물들이 들었으며 배관의 길이만 하여도 500키로메터 이상에 달합니다.

이 공장 건설을 위하여 50만 평방메터의 토량을 파 내였으며 8만 평방메터의 콩크리트를 넣었습니다.

이 방대한 공사를 우리 근로자들은 자체의 기술과 힘으로 불과 일 년이 남짓한 기간에 완수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환호)

이는 당과 한마음 한뜻으로 사는 천리마 시대 우리 로동 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위력의 시위이며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의 시위입니다.

리 승기 박사를 비롯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불면 불휴의 노력으로 우리 나라의 원료로 비날론을 생산하는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복잡한 공장 설비의 설계와 모든 기술 과제들을 원만히 수행하였습니다.

17 건설 트레스트 종업원들을 비롯한 로동자들은 앙양된 정치적 열의로 헌신적인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대중적 지혜를 동원하여 창의 고안을 하고 기계화를 도입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수 배 수십 배씩 높이였습니다.

그들은 완강한 의지로 엄동 설한에도 굴하지 않고 공장 건물 건축 공사와 설비 조립 공사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고 두만, 방 계순 동무를 비롯한 수 많은 로동자들은 어려운 일의 선두에 서서 난관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비날론 공장 건설에 동원된 전체 인민군 군인들은 가장 큰 건물 건축 공사들을 담당하고 그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인민군 군인들은 쏟아져 나오는 물 속과 감탕 속에서도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애국적 열성을 다하여 일하였으며 언 땅을 파 내고 기초를 쌓으며 집을



지었습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용감한 인민군 군인들은 이 공사에서도 다시 한 번 인민을 위하여 충직히 복무하는 인민 군대의 고상한 풍모를 보여 주었습니다. (우렁찬 박수, 환호)

모든 비날론 공장 건설자들은 혁명 선렬들처럼 조국과 인민에게 충직하려는 숭고한 일념으로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공장 설비 제작을 담당한 각지 기계 공장들과 기업소 로동자들은 창조적 열성을 발휘하여 복잡한 기계 설비들과 장치물들을 제때에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함흥 시내 청년 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시민들이 자진하여 비날론 공장 건설장에 나와 열성적으로 일하였으며 의료 일'군, 상업 일'군, 예술가들, 가정 부인들도 다 현장에 달려 나와 건설자들을 고무하며 그들을 각 방면으로 도와 주었습니다.

지난 기간은 온 함흥 지구가 창조적 로동에 들끓었습니다.

비날론 공장 건설장은 당의 뜻을 받들고 후손 만대의 번영과 조국의 부강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한 우리 천리마 기수들의 숭고한 애국주의의 발현장이였으며 자기의 행복과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창조적 로동이 위력을 발휘한 곳이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환호)

또한 그것은 락관주의에 충만된 우리 로동 계급이 신비주의와 보수주의를 타파하고 새것을 창조하며 곤난을 극복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전진의 투쟁 마당이였습니다.

비날론 공장 건설을 통하여 우리 근로자들은 그 고상한 도덕적 풍모를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당이 교양한 새로운 인간들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이야기는 전국에 퍼져 뭇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였습니다.

당이 제기한 과업이라면 어떠한 일이든지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완수하는 우리 로동 계급의 애국적 열성과 혁명적 기개, 서로 도우며 이끄는 아름다운 심정은 하나로 원혀서 위대한 힘이 되여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풀만 무성하던 갈발에 《비날론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환호)

나는 이 경사스러운 날에 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비날론 공장 건설에서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 및 군인들에게, 이 공장 설비 제작을 담당한 공장, 기업소 종업원들에게 그리고 전체 함흥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렁찬 박수, 환호 오래 계속)

비날론 공장 건설은 우리 나라 화학 공업 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비날론 공장이 앞으로 한 해 동안 생산할 2만 톤의 비날론으로부터는 1억 5천 만 메터의 질 좋은 직물을 짤 수 있습니다.

비날론 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우리의 화학 공업 기지는 더욱 강력하여졌습니다.

우리의 화학 공업은 주로 비료와 농약을 생산하던 데로부터 합성 수지, 합성 섬유, 기타 각종 화학 제품까지 생산하는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함흥 지구에 건설된 화학 공장들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화학 공업의 여러 부문들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 경제의 화학화를 급속히 촉진시킬 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비날론 공장을 비롯한 화학 공장 건설을 통하여 우리 로동자, 기술자들은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많은 지식을 체득하였습니다.

비날론 공장 건설은 화학 공업 건설의 하나의 큰 대학이였습니다.

우리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이 쌓은 경험과 지식은 앞으로의 큰 밑천으로 됩니다.

비날론 공장 건설은 우리 나라 과학 기술이 달성한 거대한 성과이며 우리 나라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명백한 표시로 됩니다.

우리 나라 과학 기술은 오늘 대대적인 화학 공업의 발전을 위한 제반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조선 인민이 달성한 자랑스러운 승리로 됩니다. (우렁찬 박수, 환호)

비날론 공장 건설은 우리 나라를 현대적인 공업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 정책의 결실의 하나입니다.

당은 오늘을 위하여 전쟁 시기에도 과학자들의 연구 사업을 보장하여 주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으며 전후에는 푼전을 아껴 가며 중공업을 창설하였으며 화학 공업의 발전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대적인 화학 공장을 단시일 내에 건설한 것은 또한 우리 당이 축성한 중공업의 강력한 힘을 보여 줍니다.

친애하는 동지들과 시민 여러분!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7개년 계획의 첫해 과업 수행에서 커다란 승리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7개년 계획 수행의 첫 전투에서 승리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계속



전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7개년 계획 기간에 사회주의 공업화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달성하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기계 공업을 핵심으로 한 중공업을 계속 발전시키며 이에 기초하여 중공업의 기간 부문의 하나인 화학 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민 경제의 화학화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 풍부한 원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값싸고 질 좋은 각종 제품을 많이 생산하며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적 진보를 달성하는 중요한 방도로 됩니다.

화학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인민 경제의 전면적인 화학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7개년 계획 기간에 당이 내세우고 있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7개년 계획 기간 내에 함흥 지구의 화학 공업 기지를 더욱 강화하며 함북도 아오지 지구와 평북도 박천 지구에 새로운 대규모적인 화학 공업 기지를 창설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은 화학 섬유 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비날론, 니트론, 나일론, 비크론, 스프, 인견사를 대량적으로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질 좋은 옷감을 유족하게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년 5만 톤 이상의 합성 섬유와 4만 내지 5만 톤에 달하는 스프와 인견사를 생산하도록 계속 건설 사업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함흥 지구 건설자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비날론 공장 제 2 계단 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년산 2만 톤의 생산 능력을 최단 기간 내에 완성하도록 하며 새로 1만 톤 생산 능력을 가진 비크론 공장을 건설할 과업이 제기됩니다.

비크론 섬유로는 질 좋은 외투지와 양복지를 짤 수 있으며 목화 솜보다 더 따뜻한 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섬유로 질 좋은 각종 공업용 직물과 자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날론 공장 건설과 염화 비닐 공장을 건설한 기세를 늦추지 말고 계속 전진하여 명년 5.1절은 비크론 섬유 공장 준공을 경축하면서 맞이할 것을 희망합니다. (우렁찬 박수, 환호)

이와 함께 7개년 계획의 첫 3년 간에 비날론 공장을 년 3만 톤 생산 수준에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화학 섬유 공장 건설에서 함북도 청진시와 평북도 신의주시의 근로자들 앞에도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진 화학 섬유 공장 건설 공사를 촉진시켜 금년 중에는 년 2만 톤 생산 능력을 가지도록 하며 래년까지는 2만 5,000톤의 스프와 인견사를 생산하도록 그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 건설을 촉진시켜 년내로 1만 톤 생산 능력을 가진 공사를 준공할 것이며 래년까지 2만 톤 생산 능력을 가진 건설 공사를 완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진과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들이 완공되면 우리는 여기서 생산되는 4만 5,000톤의 화학 섬유로부터 매년 근 2억 5천만 메터에 달하는 직물을 인민들에게 더 공급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날론 공장을 건설한 것처럼 청진 화학 섬유 공장 건설과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 건설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함흥 지구 근로자들과 함흥 시민들이 비날론 공장 건설에서 애국적 열성을 발휘한 것처럼 청진 및 신의주 지구 근로자들과 시민들이 한결같이 떨쳐 일어나 이 영예로운 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렁찬 박수, 환호)

우리는 또한 박천 지구에 니트론 공장과 나일론 공장을 비롯한 대규모의 화학 공업 기지를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은 7개년 계획 기간에 염화 비닐을 비롯한 합성 수지 공업을 발전시켜 값싸고 문화적인 일용 소비품들을 원만히 공급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함흥 지구에서 염화 비닐 생산을 년 1만 톤 이상으로 증대시키며 박천 지구에 새로운 염화 비닐, 뇨소 등의 합성 수지 공장을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은 7개년 계획 기간에 각종 화학 비료와 농약을 다량적으로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함으로써 농산물의 수확고를 더욱 높이며 살초제를 많이 생산하여 농민들에게서 김을 매는 힘든 일을 덜어 주려고 합니다.

함흥 지구에서는 년 화학 비료를 100만 톤 이상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화학 비료 생산에서 전력을 적게 쓰는 석탄 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 생산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흥 지구에 석탄 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 합성 공장을 건설하며 가까운 년간에 5만 톤 생산 능력의 조업을 실현하여야 하며 합성 뇨소와 류린안 비료 생산을 촉진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살초제 공장 건설을 촉진시키며 새로 박천 지구에 대규모적인 화학 공장을 신설하여 합성 뇨소 기타 화학 비료 생산을 증대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 유기 합성 공업을 발전시켜 7개년 계획 기간 함흥 지구에서는 합성 고무와 염료, 안료 등을 다량 생산하며 가성 소다, 탄산 소다를 비롯한 각종 화학 제품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켜야 하겠습니다.

7개년 내에 우리는 또한 함북도 아오지 지구에 년 2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하는 원유 가공 공장을 건설하며 석탄 건류에 의하여 각종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적인 화학 공업 기지를 건설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라스마스 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이미 쌓은 토대에 기초하여 계속 새로운 화학 공업 부문들을 창설하고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화학 공업 발전 전망은 실로 웅대합니다.

조선 인민은 가까운 장래에 발전된 화학 공업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며 자기 자신의 로력의 풍부한 결실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환호)

이 광활한 전망은 우리 근로자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 주며 그들의 창조적 로력 투쟁을 무한히 고무합니다.

화학 공업의 발전을 위한 방대한 과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이 부문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에게는 무거운 임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학 부문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은 화학 공업을 더 높은 단계에로 올려 세우며 화학 공업의 새로운 부문을 창설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제반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당과 인민의 기대는 큽니다.

화학 공업의 발전에 따라 연료 동력 기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원료의 원만한 공급을 위하여 광물 생산을 대대적으로 증가시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기계 제작 공업은 화학 공업 건설에 필요한 기계 설비와 장치들을 원만히 생산 공급하여야 합니다.

7개년 계획 기간 인민 경제 전반의 발전을 위하여 기계 공업이 [illegible]다한 임무는 매우 큽니다. 기계 공업 부문 일군들은 기술 장비를 더욱 반동 세여 기계 공업의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이여야 하겠습니다. 통일과

전국 인민들과 함께 함흥 지구와 함남도 내 근로자들은 모든 [illegible] 반[illegible]서 7개년 계획을 성과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전기, 광물, 석탄 생산을 계속 증대시키며 직물을 비롯한 각종 일용 소비품과 식료 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품종을 확대하여야 하겠습니다.

긴 해안을 낀 함남도에서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업으로

됩니다. 수산 부문의 기술 장비를 계속 강화하며 원해와 심해에 대담하게 나아가 적극적으로 물고기를 잡으며 중 소 어업을 옳게 배합하며 천해 양식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알곡 100만 톤 증산을 위하여 당면한 영농 작업을 빈틈 없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 인민적 운동으로 토지 개간 확장 공사를 진행하며 토지 리용률을 높이며 과수 면적을 확장하는 사업에서 북청군의 모범을 전면적으로 일반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함흥 지구와 도내 모든 지방 도시들을 그 규모에 알맞고 근로자들이 살기 좋게 건설하며 농촌 주택 건설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7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는 기술 혁신 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여 모든 부문에서 선진 국가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아야 할 것입니다.

보수주의와 신비주의를 과감히 물리치고 선진 기술과 창의 고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며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계속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대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라의 재산과 공동 재산을 사랑하며 검박하게 살며 모든 재력을 동원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켜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들과 시민 여러분!

7개년 계획의 수행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열어 놓게 될 것이며 우리가 쌓아 올린 인민 경제의 토대는 조국이 통일된 후 파괴된 남조선 경제를 복구하며 령락된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결정적인 밑천으로 될 것입니다. (박수, 환호)

우리 당은 공장 하나, 발전소 하나 건설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관개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북반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 뿐만 아니라 남조선 인민들의 래일 민들에 [illegible]한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함흥 지[illegible]의 건설에서 우리가 달성한 성과 속에는 남조선 인민들이 앞으로 누리 우리는 [illegible]몫이 들어 있습니다.

최[illegible] 남조선에서의 사태 발전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될 날이 가까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장 면 도당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점점 더 높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16년 간에 걸친 식민지 통치의 결과 남조선 인민들은 더는 참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의 피의 투쟁으로 리 승만 도당이 정권에서 쫓겨 난 후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에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의 파탄과 민생고는 계속 심하여지고 있으며 인민들에 대한 탄압은 더욱 혹심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직 출로는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철폐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데만 있다는 것을 남조선 인민들은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광명과 암흑, 번영과 파산—조선의 북과 남의 이 대조적인 현실은 남조선 인민에게 나아갈 길을 명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허물어져 가는 자기들의 통치 지반을 수습하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식 《민주주의》와 리 승만과 장 면식 《독립》과 《부흥》을 맛볼 대로 맛본 남조선 인민을 더는 속일 수도 없으며 누를 수도 없습니다.

각성된 인민들의 단결된 투쟁은 침략자들의 어떠한 아성도 무너뜨리고야 말 것입니다.

남조선의 소위 위정자들 중 어떤 자들은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하느니보다는 분렬이 낫다고까지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 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 수 없다면 남조선만이라도 계속 미국 식민지로 남겨 두어야 한다는 이런 말은 조선 인민의 리익을 팔아 먹는 민족 반역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인민은 하나이며 조선도 하나입니다. 국토의 량단과 민족 분렬의 비극은 하루 속히 청산되여야 하며 남조선 인민들은 하루 속히 그 생지옥에서 벗어 나야 합니다.

조선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오직 조선 인민 자신에 의하여 통일되여야 합니다. (박수, 환호)

오늘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요구하는 조선 인민과 그를 반대하는 반동 세력간의 투쟁에서 그 전도는 명백합니다. 남북 조선 인민들은 나라의 통일과 독립을 달성하고야 말 것이며 한 줌도 못 되는 남조선의 반동 세력들은 반드시 전 조선 인민들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물러 가고야 말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으며 국제 정세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습니다.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과 평화 력량은 더욱 강대해지고 있습니다.

쏘련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우주 비행을 실현함으로써 쏘베트 국가의 위력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시위하였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 오르고 있습니다.

큐바에 대한 미 제국주의 고용병들의 무력 침공은 큐바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였으며 라오스 인민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무력 간섭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 있습니다.

큐바 인민의 승리는 제국주의 전쟁 세력에 대한 평화 애호 력량의 또 하나의 승리입니다. (박수, 환호)

라오스 인민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여야 하며 라오스에서 평화의 회복을 위하여 미 제국주의와 그 추종자들의 무력 간섭이 즉시 중지되여야 합니다.

조선 인민은 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나아갈 것이며 전 세계 근로자들을 비롯한 평화 애호 인민들과 더욱 굳게 단결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조선 인민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과의 단결을 더욱 굳게 하고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지들과 시민 여러분!

우리는 승리와 번영의 길로 확신성 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열릴 우리 당 제4차 대회는 당의 령도 하에 조선 인민이 달성한 영광스러운 업적을 총화하고 인민들을 새로운 광활한 앞길에로 부를 것입니다.

당과 인민과의 통일, 인민들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모두다 영광스러운 사회주의 건설자로서의 높은 정치적 열성으로 당 대회를 맞이하며 빛나는 로력적 성과를 당 대회에 선물로 보냅시다. (우렁찬 박수, 환호 오래 계속)

우리에게는 훌륭한 미래가 약속되여 있으며 우리는 자신의 로력으로 이 땅에 사회주의 강국을 창건하는 성스러운 력사적 위업의 실천자들입니다.

모두다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굳게 뭉쳐 천리마의 기세로 계속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렁찬 박수, 천지를 진동하는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원수 만세!》 환호 소리 오래 계속)

권두언

# 로동당 시대의 위대한 창조물

우리의 설계, 우리의 자재, 우리의 기술로 세계 일등급의 대비날론 공장을 건설하였다. 비날론 공장의 준공—이는 우리 로동당 시대의 위대한 기념비이다.

지금 공화국 북반부 전체 근로자들은 높은 긍지를 안고 무한히 격동되고 있으며 이처럼 큰 기쁨을 가져다 준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에게 최대의 감사를 드리고 있다.

50만 평방메터의 부지에 자리잡은 비날론 공장은 아세찔렌 발생, 알데히드 등 원료 계통으로부터 시작하여 방사, 후처리 공정에 이르기까지 큰 건물만 하여도 30 여개나 된다.

이 공장에는 근 1만 톤에 달하는 1만 5,000 여개의 기계 설비와 장치물들이 들었으며 배관의 길이는 500키로메터 이상에 달한다. 고도의 정밀성을 가진 복잡하고 웅장한 기계 설비들과 장치물들은 자동화 및 반 자동화 체계에 의하여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설치되였다.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우리의 힘으로 이렇듯 위대한 기적을 창조한 것은 우리 당 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다.

당은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발기에 의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나라의 풍부한 원료 원천에 확고히 의거하면서 비날론을 비롯한 합성 섬유 공업을 발전시킬 것을 중요하게 제기하였으며 그의 실현을 위한 명확한 방도를 제시하고 이 사업을 직접 조직 지도하였다.

전시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인민의 래일을 멀리 예견한 당과 김 일성 동지는 이 부문 과학 일'군들의 연구 사업을 직접 조직하여 주었으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마련하여 주었다.

당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우리의 재능 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빛나는 과학 기술적 성과에 기초함으로써만이 그처럼 높은 과학 기술 수준을 요하는 이 공사를 우리의 설계와 기술로 능히 완공할 수 있었다. 《비날론 공장 건설은 우리 나라 과학 기술이 달성한 거대한 성과이며 우리 나라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명백한 표시로 된다》(김 일성, 《화학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이것은 우리 당이 축성한 기계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의 강력한 힘을 남김 없이 시위한 것으로 된다.

우리 당이 푼전을 아껴 가며 오늘처럼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지 않았던들 이 방대하고 복잡한 건설을 짧은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비날론 공장의 준공—이는 우리 나라 공업이 달성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것이며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기본 경제 로선의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다.

비날론 공장의 건설은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문제를 혁명적 방법으로 대담하게 해결하여 나가는 우리 당 령도의 현명성을 다시 한 번 뚜렷이 보여 준다.

우리 당은 조성된 가능성들과 성과에 확고히 의거하면서 제때에 모든 력량을 비날론 공장 건설에 집중시켰다.

《모든 힘을 비날론 공장 건설에로》라는 당의 호소와 김 일성 동지의 수차에 걸친 현지 지도에 고무된 전국 인민들과 건설자들은 당이 제기한 과업을 훌륭히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였다.

기계 및 금속 공장들을 비롯한 전국 300 여개의 공업 기업소들이 이에 각종 기계 설비들과 장치물들을 생산 공급하였으며 로동자, 사무원, 군무자, 청년 학생, 시민 할 것 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이 건설 공사를 적극 지원하였다. 실로 비날론 공장은 전체 인민의 고귀한 로동으로 이룩된 위대한 창조물이다.

비날론 공장 건설에서 달성한 빛나는 승리는 당과 한마음 한뜻으로 사는 천리마 시대의 우리 로동 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위력의 시위이며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 단결을 과시하는 것이다.

비날론 공장 건설을 통하여 당에 의하여 교양된 우리 근로자들의 고상한 정신 도덕적 풍모가 남김 없이 발휘되였다.

당이 제기한 과업이라면 어떠한 일이든지 기어코 해내고야 말 높은 혁명적 열의에 들끓는 건설자들은 혁명 선렬들처럼 오직 조국과 인민에게 충직하려는 일념으로 온갖 곤난을 극복 타개하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리 제순, 마동희, 박 길송 등 혁명 투사들의 이름을 지닌 돌격대를 비롯하여 건설장에는 수백 개의 돌격대가 조직되여 가장 힘든 일을 담당해 냈다. 하루'밤 사이에 1만 립방메터의 흙을 파 헤치고 10만매의 벽돌을 쌓는가 하면 1년이 걸려야 할 높이 40 여메터의 굴뚝을 단 열사흘간에 쌓아 올리는 등 도처에서 대중적 영웅주의와 집단적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500%쯤이면 수수하고 1,000%래야 괜찮다는 《비날론 속도》가 바로 이렇게 창조되였다.

《비날론 공장 건설장은 당의 뜻을 받들고 후손 만대의 번영과 조국의 부강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한 우리 천리마 기수들의 숭고한 애국주의의 발현장이였으며 자기의 행복과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창조적 로동이 위력을 발휘한 곳이였다》 (김 일성, 《화학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실로 비날론 공장 건설은 우리 인민의 천리마적 기상의 집중적 발현으로 되며 인민 생활 향상과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한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의 위대한 구상의 실현으로 된다.

이것은 오직 주권을 인민이 틀어 쥔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만, 당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된 인민만이 창조할 수 있는 위대한 기적이다.

우리 북반부 근로자들이 자신의 로력으로 건설한 비날론 공장을 민족적 긍지 높이 세계에 자랑하며 남조선 형제들이 이에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어 외세 의존의 망국의 길을 박차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반미 구국 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 인민의 생활 향상과 조국 통일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큰 일을 해 놓았다.

우리는 앞으로 질 좋고 다양한 비날론 천을 다량 생산함으로써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더욱 풍족히 해결하며 인민 생활을 가일층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게 되였다.

또한 비날론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우리는 각종 합성 섬유와 합성 고무를 비롯한 유기 합성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 경제의 화학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튼튼한 터전을 마련하였다.



비날론 공장 건설은 화학 공업 건설의 하나의 큰 대학이였다. 여기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은 앞으로 우리 나라를 발전된 화학 공업의 나라로 전변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는 이미 7개년 계획의 첫 전투에서 하나의 중요한 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다.

비날론 공장 준공을 경축하면서 5월의 명절을 기념하는 함흥시 군중 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김 일성 동지는 화학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명확한 전망과 구체적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승리자의 기쁨으로 들끓는 우리 인민에게 광활한 전망과 더욱 높은 긍지를 안겨 주고 있으며 그들을 무한히 고무하고 있다.

우리는 짧은 기간에 염화 비닐 공장과 비날론 공장을 건설한 기세를 늦추지 말고 계속 이 공장들의 능력을 확장하는 사업과 함께 비크론 공장, 청진 및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을 비롯한 새로운 현대적 화학 공장들의 건설을 진행하여야 한다.

비날론 공장 건설 경험이 다시 한 번 확증하여 준 바와 같이 우리 당이 하자고 하는 일이면 못할 것이 없다.

우리는 당의 령도를 받들고 나라의 만년 대계를 위한 웅대한 리상을 자신의 힘으로 급속히 실현하고 있는

슬기로운 인민이다. 우리는 도처에서 창조와 혁신의 정열이 넘치고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가며 만사가 다 잘 되여 가는 로동당 시대에 살고 있다.

조국의 평화 통일을 더욱 촉진하며 이 땅에 사회주의 강국을 창건하는 성스러운 력사적 위업의 촉진을 위하여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의 위대한 구상을 더욱 훌륭히 실현하자.

승리자의 기세 드높이 현대적 화학 공업 기지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4차 당 대회를 보다 큰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

# 조국 광복회 창건 25주년

오늘 조선 인민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국 광복회의 자랑찬 력사적 행로를 긍지 높이 회고한다.

조국 광복회는 1936년 5월 5일에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발기와 지도 하에 조직되였다.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출현한 조국 광복회는 우리 나라 민족 해방 운동에서 첫 반일 민족 통일 전선체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의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는 조직적 거점이였다.

조국 광복회의 창건은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추세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현명한 조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일제의 조선 강점 후 끊임 없이 계속 진행되였다.

특히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영향 하에 1920년대에 들어 서면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 대중의 투쟁은 더욱 강화되였다.

그러나 이 모든 투쟁들은 진정한 정치적 지도 력량과 정확한 혁명 로선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단합되지 못하였으며 막대한 희생과 우여 곡절을 겪었다.

우리 인민의 민족 해방 운동은 1930년대에 들어 와서 비로소 자기의 믿음직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 력량을 가지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무장 투쟁을 조직 전개하면서 당시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새로운 정세와 변화된 계급적 력량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극소수의 친일 지주, 예속 자본가, 민족 반역자들을 제외한 모든 계층들을 로동 계급의 주위에 조직적으로 집결시키기 위한 명확한 전략적 방침을 제기하였다.

바로 이 방침에 의하여 조국 광복회가 조직되였다.

조국 광복회의 조직은 당시 반파쑈 인민 전선을 결성할 데 대한 국제당의 새로운 로선을 조선 현실에 적응하게 구현한 것으로 된다.

실로 조국 광복회의 창건은 우리 나라 혁명 운동 발전의 객관적 요구와 조선 로동 계급 앞에 제기된 국제적 임무를 정확히 실현하는 조치였다.

조국 광복회 강령에는 우리 나라 혁명 운동에서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정식화된 맑스-레닌주의적 혁명 로선이 제기되였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작성된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력사적 문헌이다.

이 강령에는 조선 혁명의 성격과 임무, 그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 전술상 방침들이 규정되여 있다.

강령에는 인민 정부 로선과 함께 인민 무력 창설에 대한 문제와 앞으로 수립될 인민 정부의 대외 정책의 기본이 천명되여 있다. 당면하게 반제 반봉건 혁명 과업을 규정하고 있는 이 강령은 레닌적 계속 혁명 리론에 립각하여 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로 급속히 전진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 강령은 로동자, 농민의 근본적 리익과 각계 각층의 리해 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일관되여 있다.

조국 광복회는 그의 혁명적 강령의 위대한 견인력과 함께 공산주의자들의 희생적 투쟁과 능숙한 령도로 하여 동북의 광활한 지역과 국내 깊이에 이르기까지 그의 조직망을 급속히 확대하여 갔다.

조국 광복회의 국내 조직인 조선 민족 해방 동맹과 각 지방에 파견된 정치 공작원들의 활동에 의하여 국내에서는 로조와 농조들이 단일한 혁명 력량으로 결속되여 갔다.

그리하여 불과 수개월 동안에 수십만에 달하는 각계 각층의 광범한 반일 력량이 조국 광복회 산하에 집결되였다.

조국 광복회의 활동은 우리 나라 혁명 운동 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진다.

조국 광복회는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조선 혁명 실천과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였다.

조국 광복회가 제시한 혁명 로선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였다.

조국 광복회는 자기의 실천적 활동을 통하여 인민 대중을 반일 투쟁에로 힘차게 고무하였으며 항일 무장 투쟁을 더욱 광범한 대중적 지반 우에 올려 세웠고 각종 형태의 반일 운동을 더욱 적극화시켰다.

또한 조국 광복회는 투쟁 행정에서 수 많은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였으며 대중과의 사업에서 고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대중을 결속시키기 위한 투쟁 행정에서 합법적 및 비합법적 투쟁의 유기적 결합, 통일 전선 사업에서 상층 통일과 특히 그의 기본으로서의 하층 통일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투쟁 방법과 전술의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실로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무장 투쟁과 함께 조국 광복회의 실제 활동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였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이룩하였다.

조국 광복회의 자랑찬 업적과 고귀한 경험은 해방 후 우리 혁명 발전의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으며 이 뿌리로 하여 우리 당은 온갖 시련을 이겨 내면서 전체 조선 인민을 자기 주위에 묶어 세워



오늘과 같은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조국 광복회의 강령은 우리 나라 절반 땅 우에서 이미 구현되였고 찬란히 개화 발전되고 있다.

25년 전에 조국 광복회가 제시한 길을 따라 해방 후 우리는 인민 정권을 수립하고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 개혁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이 땅에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북반부를 조국의 통일 독립의 튼튼한 기지로 전변시켰다.

우리는 10대 강령에 체현된 레닌적 계속 혁명 리론에 따라 사회주의 건설에로 줄달음쳐 나아갔다.

전후 시기에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함으로써 착취와 빈궁의 온갖 사회적 근원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하였다.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과 근로자들의 애국적인 로력 투쟁에 의하여 지난 날 락후하고 짓밟혔던 우리 나라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확고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적 공업-농업국으로 전변되였다.

온갖 질곡으로부터 해방된 나라의 생산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의 공업 생산은 작년에 해방 전 1944년 수준을 7.7배로 릉가하였으며 협동화된 농촌 경리는 해방 전에 비하여 1.5배의 알곡을 생산하였다.

북반부에서는 사람들의 처지도 면모도 일신되였다.

오랜 세월을 두고 굴욕과 천대와 빈궁과 몽매에서 허덕이던 우리 인민은 로동당 시대에 와서 비로소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였을 뿐만 아니라 모두다 의식주에 대하여 근심 걱정을 모르는 인민으로, 문명하고 강력한 인민으로 되였다.

유구한 우리 나라 력사에서 오늘처럼 우리 인민이 환희와 희망으로 들끓고 창조와 락천으로 충만된 시대는 일찌기 없었다.

조국 광복회가 제기한 강령을 실현하며 이 땅 우에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 행정은 곧 우리 당이 광범한 군중을 자기 주위에 결속하고 그들을 교양 개조하여 북반부를 단일한 정치적 력량으로 꾸리는 과정이였다.

우리 당은 조국 광복회를 통하여 구현된 통일 전선 로선과 그의 풍부한 경험을 해방된 조선의 현실에 적응하게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각계 각층 군중들을 당 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키는 사업을 능숙하게 해결하였다.

우리 당은 장구한 일제 통치와 조국의 분렬 특히 전쟁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사회 정치적 구성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악질적인 반혁명 분자들을 제외한 모든 군중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적극적인 역'군으로 되게 하였다.

당은 항상 《혁명은 대중을 위한 사업이요, 인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

온 사람을 참가시키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충실하였다.

우리는 지난 날 공산주의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군중을 전취하기 위하여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대중 속에 대담하게 들어 가 그들을 아량 있게 포섭하고 인내성 있게 교양 개조한 고귀한 품성과 경험을 지침으로 삼았다.

당은 극소수의 반혁명 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고 고립시키면서 광범한 대중을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였으며 그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개조하였다.

그리하여 당은 우리 사회의 정치 도덕적 통일을 반석같이 강화하였으며 원쑤들을 대중으로부터 철저히 고립시켰다.

이것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확립된 혁명적 군중 공작 방법과 조국 광복회의 력사적 경험의 전면적 구현으로서 뭉칠 수 있는 모든 계층들을 전취하며 원쑤를 철저히 고립시키는 우리 당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조치의 거대한 승리로 된다.

우리는 이미 새 사회 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장시간을 요하는 인간 개조 사업에서 중요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당이 일관하게 진행하여 온 공산주의 교양, 혁명 전통 교양은 사람들의 정신-도덕적 품성에서 근본적인 전변을 가져 왔다.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 속에서는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자!》 라는 구호 하에 동지를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 돕고 서로 받들면서 힘든 일은 서로 앞을 다투어 하는 미풍이 지배하고 있으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뒤떨어진 사람을 이끌어 올리며 모든 사람들을 교양하여 개조하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군중을 교양하는 우리 시대의 위대하고 훌륭한 공산주의 학교로 되고 있으며 청산리 방법은 각계 각층 군중을 붉은 사상으로 교양 개조하는 사업에서도 일대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청산리 방법이 가져 온 위대한 성과에 기초하여 당 중앙 위원회가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붉은 편지는 각계 각층 군중을 우리 당 주위에 더욱 튼튼히 결속하며 북반부를 단일한 사회주의적 정치 력량으로 꾸리는 위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열어 놓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를 더욱 높일 수 있게 할 것이며 나아가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 남반부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북반부 인민들이 달성한 성과와 우리 당의 통일 방안에 고무되면서 민족의 자주적 힘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은 날로 격화되고 있으며 인민들은 투쟁 행정에서 더욱 각성되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16년 간에 걸치는 식민지적 략탈과 지배는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들 뿐만 아니라 청년 학생들과 지식인들, 소시민들과 민족 자본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을 갈수록 고통과 몰락의 구렁에 몰아 넣고 있다.

인민들은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미제의 강점이 지속되는 한 그 누가 정권에 들어 앉아도 자기들의 처지가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명백히 깨닫고 있다.

그들은 오직 북반부에 축성된 강력한 물질적 토대에 의거함으로써만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으며 도탄에 빠진 민생이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이 모든 것은 오늘 미제를 반대하는 전 인민적인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을 결성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 당은 항상 미제를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왔으며 이미 오래 전에 남반부의 광범한 각계 각층 인민들과 단결할 데 대한 원칙적 태도를 천명하였다.

우리 당은 민족의 자주와 자결을 주장하는 모든 지향을 환영하며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나서는 사람이라면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손잡고 나아 갈 것이다.

조국 광복회의 력사적 경험에 기초한 우리 당의 이러한 립장과 원칙적 태도는 남반부 인민들에게 거대한 혁명적 작용을 놀고 있다.



특히 작년 8월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우리 당의 새로운 통일 방안과 그를 구체화한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8차 회의의 제안들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길을 명시하고 있다.

이 제안들은 일제 통치 시기에 조국 광복회의 10대 강령이 조선 인민을 반일 구국 투쟁에로 궐기시킨 것처럼 오늘 남조선 인민들을 반미 구국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금 남조선 인민들은 우리 당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 당이 제기한 통일 방안에서 자기들의 구원의 길을 찾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조국 통일과 민족 번영의 관건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 쥐고 그를 주동적으로 추진시키는 당으로 되였으며 남북 조선 전체 인민이 공인하는 승리와 행복의 향도자로, 조직자로 되고 있다.

오늘 조선 인민은 조국 광복회 창건 25주년을 기념하면서 벌써 25년 전에 오늘과 같은 행복한 사회를 설계하였고 그의 실현에로 우리 인민을 능숙하게 인도하여 온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핵심을 가진 것을 무한한 행복으로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 령도 핵심의 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단결하여 이미 착수한 7개년 계획의 첫해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개조하여 복반부를 강철의 요새로, 화목하고 단합된 붉은 집단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 것으로써 우리 당 4차 대회를 뜻 깊게 맞이 할 것이다.

최근에 원쑤들은 남조선에서 날로 강화되는 반미 투쟁을 무마하기 위하여 간교하고 음흉한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원쑤들이 흉책을 감행하면 할수록 더욱 높은 경각성을 견지하고 원쑤들의 음모를 격파할 것이며 우리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사회주의 전취물을 철옹성 같이 고수할 것이다.

조선 인민은 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령도 하에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 인민들과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 확신성 있게 나아갈 것이다.

---

# 농업 생산 발전에서 작업반 우대제가 가지는 의의

리 석 록

김 일성 동지는 청산리 교시에서 우리 나라 농촌에 조성된 새 환경에 적응하게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보다 정확히 관철하며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더욱 적극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의 하나로서 작업반 우대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작업반 우대제는 현 시기 우리 나라 농촌에 조성된 구체적 조건에 적응하게 분배 관계를 더욱 완성시킴으로써 생산 관계를 강화하고 농업 생산 발전을 추동한 중요한 조치이다.

작업반 우대제를 실시한 후 지난 1년간의 경험은 그것이 생산에 대한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 도덕적 자극의 강화를 조건 지으며 이들을 훌륭히 결합시킴으로써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조치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작업반 우대제의 도입은 조합원들의 집단적인 로력 열의를 비상히 제고시켰으며 매개 조합원들로 하여금 직접 생산의 조직자이며 주인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인식케 함으로써 생산에 대한 책임성과 열성을 보다 제고시켰다.

그것은 또한 작업반들에서 토지, 로력, 자재, 자금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계획을 정확히 세우며 모든 력량을 농업 생산에 집중시키는 등 생산 조직에서도 현저한 개선을 이룩하게 하였다.

작업반 우대제의 도입으로 일을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분배와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 농민들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모든 농사일을 제때에 질적으로 수행하였다.

지난 해 우리 나라 농업 생산 발전에서 이룩된 거대한 성과는 청산리 교시의 위대한 생활력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 교시에서 제시된 작업반 우대제가 가지는 의의를 뚜렷이 실증하여 준다.

지난 해에 우리 나라 농업 협동 조합원들의 1인당 수득 로력일 수는 평균 301일로부터 345일로 장성되였으며 10만 3,000정보의 경지 면적이 새로 확

장되고 토지 리용률이 150%로부터 174%로 제고되였다.

알곡 380만 3,000톤을 생산하는 류례없는 대풍작을 거둔 농민들은 기세 충천하여 금년도 100만 톤 알곡 증산을 위한 영농 전선에서 작년에 비하여 1.5배나 되는 질 좋은 자급 비료를 생산 시비하였으며 전체 논 면적의 50% 이상에 랭상모를 낼 수 있는 건모를 육성하고 옥수수를 비롯한 작물의 씨뿌리기와 벼모내기를 례년보다 훨씬 앞당기는 등 계속적인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 ❀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발기에 의하여 실시된 작업반 우대제는 협동 조합들의 규모가 확대되고 로동의 사회화 수준이 제고된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게 로동에 의한 분배 법칙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실현케 하는 창조적이며 현명한 대책이다.

모든 생산자들로 하여금 그 능력을 될수록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분배 방식은 생산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킨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관철하는 기본 수단으로서 로력일을 도입 리용하는 한편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더욱 자극하기 위한 각종 보충적 대책들—현물 우대제, 로력일 가산 및 삭감제, 전불제 등을 이와 결합시켜 실시하도록 지도하였다.

우리 당의 이와 같은 방침들은 해당 시기 농업 협동 경리 발전의 구체적 조건에 부합되였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자극하여 협동 경리를 조직 경제적으로 공고화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그러나 수입 분배가 년말에 가서 로력일에 따라 조합적으로 실시되는 조건하에서 로동의 질과 량에 따르는 분배 법칙의 요구가 그대로 정확히 실현되기는 어려웠다.

계획을 수행한 작업반이나 미달한 작업반을 막론하고 조합의 총 수입을 총투하 로력일에 의하여 분배한 사정은 작업반들의 생산 성과에 따르는 물질적 자극을 강화함에 있어서 일정한 부족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로력일 가산 및 삭감제에 의하여 이러한 부족점이 적지 않게 보충되였으나 이것으로써 공동 경리 발전에 대한 조합원들의 물질적 관심을 고도로 자극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하였다.

급속히 변화 발전한 농촌에서의 생산 관계와 생산력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농촌 경리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고 그의 관리 운영 수준을 보다 제고하는 동시에 또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시켜야 하였다.

이에 있어서 조합의 생산과 경영 활동에 있어서의 작업반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였다.



조합이 수행하는 기능과 활동의 범위가 적고 단순하던 때에는 작업반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높이는 문제가 그리 크게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합과 작업반들의 규모가 확대된 조건 하에서는 관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작업반의 생산 조직을 개선하여야만 농업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를 위하여 작업반 성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인내성 있게 진행함과 함께 생산에 대한 그들의 집단적인 물질적 관심을 더욱 적극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작업반 전체 성원들의 로력적 열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발견하고 그를 정확히 실시하는 것은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우리 당은 농촌 경리 발전 자체가 제기한 이와 같은 객관적 요구를 해결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생산 의욕을 더 북돋아 주기 위한 적극적 대책으로서 《작업반별로 생산 계획을 주고 계획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 들여 놓지 않고 해당 작업반에서 반원들이 나누어 먹도록 하는 작업반 상금제》(김 일성 《강서군 당 사업 지도에서 얻은 교훈에 대하여》 40페지)를 도입하게 하였다.

작업반 우대제는 사회주의 농업에서 차액 지대의 조성과 분배에 관한 맑스 레닌주의 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부합되게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생산 의욕을 비상히 제고시키고 농업 생산 발전을 강력히 추동시킨 조치로 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농업에서 차액 지대 Ⅰ과 Ⅱ의 분배를 사회주의적 원칙에서 정확하게 실시하는 문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모든 나라에서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어렵고도 복잡한 과업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된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는 절대 지대를 발생시키는 사회 경제적 근원은 없으나 차액 지대는 존재한다.

자연적 비옥도와 위치에 따라 서로 구별되는 각이한 토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사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차액 지대 Ⅰ은 응당 국가 수중에 들어 가 인민 경제의 확대 재생산과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복리 증진을 위하여 리용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조합원들이 투하한 로동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자연적 조건에 의하여 조성된 이 지대가 조합에 남게 된다면 그것은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 법칙과는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액 지대 Ⅰ과는 달리 토지의 단위 면적에 대한 생산 수단과 로력의 추가적 투하에 의하여, 생산의 집약화

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차액 지대 Ⅱ는 로동에 의한 분배 법칙의 요구에 상응하게 그의 일정한 부분을 조합에 남겨 두는 것이 응당한 일이다.

집약화 수준의 차이에 의하여 조성되는 차액 지대 Ⅱ의 일정한 부분을 조합에 남겨 두는 것은 조합원들의 집약화에 대한 물질적 관심을 제고시키며 결국은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킨다. 이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토지 면적이 적고 그 대부분이 매우 척박한 땅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나라에서 알곡을 비롯한 농작물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기본 고리는 집약적 농법을 더욱 발전시켜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는 데 있기 때문이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농촌 경리의 집약화—바로 이것이 다수확의 기본이며 영농 사업에서의 우리 당의 기본 방침이다》(선집, 제 6권, 198페지).

이와 같이 우리 나라 농업 발전에서 생산의 집약화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당은 집약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투자에 의한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를 실시하며 농민들로 하여금 심경, 밀식, 다량 시비 등 각종 선진 집약 농법을 적극 도입케 하는 한편 집약화에 대한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고정 현물세제의 실시, 지대별 고정 농기계 작업료의 설정, 지대별 농업 생산물 수매 가격의 설정 등이 바로 그러한 조치였다.

작업반 우대제는 당이 취한 이러한 모든 대책들과 함께 집약화에 대한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을 더욱 적극적으로 자극하는 매우 중요한 대책으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이 문제에서 작업반 우대제가 가지는 본질적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가령 어떤 작업반에 50명이 논 50정보와 밭 50정보를 경작하기로 되여 있는데 국가에서 논에서는 정당 4.5톤, 밭에서는 옥수수 2톤을 낼 것을 계획하였다고 하자. 이 때에 만약 이 작업반 동무들이 열심히 일하고 창발성을 발휘하여 국가가 예견한 정당 수확고를 훨씬 초과하여 벼는 정당 5.5톤, 옥수수는 3톤씩 냈다면 현물세라든가 관개 사용료는 이미 예정하였던 수확고에 대해서만 계산하기로 하고 초과 생산한 벼 50톤과 옥수수 50톤은 작업반원들이 나누어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일을 잘 하는 작업반에서는 조합적으로 분배를 받는 외에 자기들이 계획을 초과 실행한 것만큼 분배를 더 받게 된다. 이렇게 하면 작업반별로 더 많이 생산하려는 경쟁이 붙을 것이며 생산이 더 많이 될 것이다》(김 일성,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 19~20페지).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작업반 우대제에서는 매개 작업반들의 구체적 생산 조건 즉 차액 지대 Ⅰ을 조성케 하는 자연 조건들을 면밀히 타산하여 계획 과제를 준 다음 작업반들에서 집약화 수준을 높여 계획 과제(우대 기준)를 초과한 부분은 조합의 총 수입 분배 체계에 포함시키지 말고 그의 전량을 작업반원들이 나누어 가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작업반 우대제는 차액 지대 분배에서의 객관적 요구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는 획기적인 조치로 된다.

우리 당은 작업반 우대제를 도입하면서 비단 작업반원들의 물질적 관심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의 관리와 조직에 대한 조합 관리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합에 부과된 계획 과제를 초과 완수하였을 때에는 조합의 규모, 계획의 수행 정도에 따라 조합 관리 일'군들에게 국가가 상금을 지불하게 하였다.

당이 취한 이 모든 정확한 조치는 농촌 근로자들의 로력적 열성을 비상히 앙양시켰다.

작업반 우대제가 전반적으로 실시된 첫 해인 1960년에 전국적으로 우대를 받은 작업반은 1만 2,600 여개, 조합원 수는 63만 여명에 달하였으며 전체 작업반들이 모두 생산 과제를 초과 완수하여 우대를 받은 조합들도 적지 않다.

＊ ＊

작업반 우대제가 가지는 또 하나의 거대한 의의는 그것이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의 강력한 수단으로도 된다는 데 있다.

작업반 우대제는 그 자체가 로동에 대한 사회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훌륭히 결합시킨 중요한 대책이다. 그것은 개인의 리익과 집단의 리익을 결합시키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의 리익 속에서 개인의 리익을 찾게 하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작업반 우대제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먼저 조합원들 속에서 개인 리기주의를 반대하고 집단주의 교양을 강화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조성한다.

작업반 우대제가 도입된 조건 하에서는 작업반 전체 성원들의 공동 로동의 결과가 작업반원들의 수입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업반원들의 개인적인 물질적 관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물질적 관심과 책임성을 제고케 한다. 한 부문, 한 사람의 락후도 그것은 곧 다른 부문, 다른 사람의 전진에 지장을 주며 결국 작업반 집단의 리익에 배치된다. 따라서 그것은 생산 활동에 대한 통제와 검열을 공동으로 하고 앞선 사람은 계속 나아가면서 뒤떨어진 사람을 이끌어 올리고 뒤떨어진 사람은 앞선 사람을 더 빨리 따라 가게 하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한마음 한 뜻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게 한다.

작업반에 고착된 공동 재산인 농기계 및 기구, 가축, 건물들에 대한 관리 및

리용 여하는 곧 작업반의 수입, 결국에는 개인들의 수입에 영향을 준다. 때문에 작업반 우대제의 도입은 매개 조합원들을 국가 재산과 공동 재산을 애호 관리하는 정신으로 교양하게 한다.

작업반 우대제의 도입은 로동에 대한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는 데 기초하고 있으므로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조합원들을 교양하게 한다. 작업반 우대제에서는 《사람은 자기가 일해서 번 것을 먹고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할 뿐만 아니라 로동을 성실히 하고 창발성을 발휘하면 할수록 더 많은 수입을 받게 되므로 모두다 주인답게 자각적으로 공동 로동에 참가하도록 만든다.

작업반에서 보다 많은 우대 몫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선진적인 사회주의 협동 경리에 적응하게 관리 운영 방법과 모든 영농 방법을 대담하게 개선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작업반 우대제는 농민들 속에서 낡은 것을 고집하는 보수주의 사상을 버리고 부단히 혁신하는 기풍이 적극 배양되도록 자극한다.

이 모든 것은 작업반 우대제가 농민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도록 하는 그러한 물질적 관계이며 작업반을 거점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 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작업반 우대제가 농민들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촉진시키며 심화시킨다는 것은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서 광범히 전개되고 있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로동과 사상 생활에서는 일대 전변이 일어 나고 있으며 우리 나라 농촌 경리는 더욱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

* *

작업반 우대제는 우리 당이 맑스-레닌주의 정치 경제학 리론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또 하나의 모범으로 된다.

그것은 농업 생산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생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농민들의 사상 의식을 개변시킴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당은 우리 일'군들이 작업반 우대제가 가지는 거대한 리론 실천적 의의를 명백히 리해하며 그것을 능숙하게 실천에 옮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작업반 우대제를 정확히 실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매개 작업반의 토지 조건, 로력 보장 상태, 농기구 상태 등 구체적 실정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기초 우에서 우대제 기준을 정확히 사정하는 것이다. 작업반 간에 우대제 기준을 불공평하게 주거나 고정 작업반제를 무시



하고 로력, 축력, 경지를 함부로 이동하려는 것과 같은 경향은 철저히 배격되여야 할 것이다.

로력과 생산 수단을 고정시키고 생산 계획을 준 다음에는 그 계획을 반드시 초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관리 위원회는 필요한 종자, 농약, 화학 비료 등을 제때에 보장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작업반들의 생산 계획 초과 조건을 보장하는 문제와 아울러 또한 중요한 것은 계획을 초과 수행하도록 작업반 성원들에게 분공을 잘 조직하여 주며 작업반 본위주의를 극복하도록 정치 사업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농촌 경리 부문 지도 일'군들이 작업반 우대제를 옳게 도입하도록 구체적인 지도 사업을 보장하며 그의 우월성을 남김 없이 발휘시킨다면 농업 협동 경리 발전에서는 보다 큰 혁신이 이룩될 것이다.

작업반 우대제를 정확히 도입하는 것—바로 이것은 당면하여 알곡 100만 톤을 증산하고 농촌 경리에서 일대 앙양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 튼튼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 북청 회의가 제기한 전투적 과업

김 성 태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북청 회의는 금후 4~5년 내에 과수원을 30만 정보, 상전을 10만 정보 이상으로 확장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당이 제시한 이 거대한 자연 개조 사업의 수행은 조국의 산들을 황금산으로 만들며 우리 나라 농촌 경리를 보다 발전된 다각 경리로 전환시킬 것이며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급속히 촉진시킬 것이다.

실로 금번의 북청 회의는 우리 나라 과수업과 잠업 발전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 오게 하며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획기적으로 촉진시킬 중요한 계기로 된다.

또한 북청 회의는 과학적 예견성에 기초하여 문제를 대담하게 구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완강한 혁명적 전개력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다.

*　　*

오늘 우리 나라 농업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 섰다.

농업 협동화가 승리적으로 완수되였고 낡은 생산 관계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된 농업 생산력은 급속한 속도로 발전되고 있다.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 밑에 농업 기계화의 력사적 과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우리 나라 농업은 튼튼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갖게 되였다.

위대한 청산리 방법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생산력 발전을 가일층 추동하였다. 청산리 방법이 관철됨으로써 농업 부문에서 지도가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되였고 농민들의 기세는 더욱 앙양되였다.

우리 나라 농업은 지난 해 력사상 처음으로 380만 3,000톤의 알곡을 생산하였고 농민들의 생활은 모두가 다 중농 또는 부유한 중농 수준에 도달하였다.

우리 당 농업 정책이 거둔 이 거대한 승리는 가까운 년간 내에 알곡 생산을 500만 톤, 7개년 계획 기간 내에 700만 톤 수준으로 장성시키면서 동시에 산들을 개간하여 과수원과 상전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거대한 자연 개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로 된다.

북청군의 경험은 금번 당이 제시한 대자연 개조 사업이 충분히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북청군은 경지가 제한되여 있으며 많은 산들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매우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 그러나 토지를 아껴 다루며 산을 잘 리용할 데 대한 당의 일관된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를 충실히 집행함으로써 북청군 일'군들은 알곡을 비롯하여 과실, 잠견 등의 생산량을 급속한 속도로 장성시켰다. 북청군에서는 계단식 축조 방법으로 산들과 경사지들을 대대적으로 개간함으로써 과수원 조성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오늘 북청군 총 경지 면적의 11%에 해당하는 과수 면적에서 그의 41%가 16도 이상의 산을 개간한 것이며 110정보에 달하는 과수밭은 26도 이상의 급경사지를 개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경사도가 높은 산들에 과수원을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난 해 정당 평균 21톤의 과실을 땄으며 군적으로 총 9,600 톤의 과실을 생산하였다. 이는 군내 농업 협동 조합 현금 총 수입의 41.2%에 해당한다.

북청군에서의 이러한 생동한 경험은 산을 잘 리용할 데 대한 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만 한다면 산이 많은 우리 나라의 조건 하에서 얼마든지 과수원과 상전을 확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들에게 준다.

금번 우리 당 중앙 위원회가 북청군 현지에서 당, 정권 기관 및 경제 부문 지도 일'군들을 다수 참가시켜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고 실천적 경험으로 일'군들을 교양한 리유가 여기에 있다.

산을 정복하며 그것을 개조하여 재부의 원천으로 전변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 행정에서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 나라는 경지 면적이 제한되여 있는 반면에 산이 국토의 근 80%를 차지하고 있는 까닭에 산을 잘 리용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과업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일찍부터 산을 잘 리용할 데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 왔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 백무 고원, 개마 고원, 신계 대지들을 비롯한 전국의 산들에서 수만 정보의 새로운 농경지가 개간되였고 5호 농장을 비롯한 대규모 국영 농장들이 창설되였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만도 전국의 야산들을 개간하여 과수원 10만 정보와 상전 6만 정보를 조성할 데 대한 과업이 전 인민적 운동으로 빛나게 수행되였다. 그리하여 전후 년간에 과실 생산량은 4.3배, 잠견 생산량은 2.5배로 각각 증가되였다.

그러나 7개년 계획 수행에 들어 선 오늘 우리는 이 부문에서 달성한 성과에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

7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중공업의 우선적인 발전에 기초하여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에서 결정적 전진이 이룩될 것이며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과 함께 농업 생산이 전면적으로 발전되게 될 것이다.

농업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 발전에서 기본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다.

전국의 산 경사지를 적극적으로 개간하여 과수업과 잠업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우리의 농업을 발전된 다각경리로 전변시키는 것은 7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력사적인 북청 회의 결정은 우선 인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북청 회의는 우리 나라 도처에 널려 있는 광활한 미개척지들을 재부의 원천인 농토로 전환시키는 력사적인 계기를 열어 놓았다.

북청 회의 결정의 수행은 우리 나라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일관된 농업 정책을 보다 훌륭히 관철시킬 수 있게 한다.

북청 회의 결정이 수행되는 그 때에 가서 우리의 경지는 결정적으로 증가될 것이고 우리 나라의 많은 야산들은 화려한 과수원으로 전변될 것이다.

북청 회의 결정의 수행은 새 땅을 쟁취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부를 크게 증대시킬 것이다.

4~5년 내에 새로 조성될 20만 정보의 과수원에서 정보당 평균 10톤의 과실을 생산한다 치더라도 우리는 200만 톤의 과실을 새로 얻게 될 것이다. 과실 1톤으로 밀 2톤, 옥수수 3톤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막대한 국가 재부가 새로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수업과 잠업은 수익성이 높은 경리인만큼 이 결정의 수행은 농민들 특히 산간 지대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며 그들의 생활을 더욱더 개선 향상시키게 할 것이다.

이 결정이 수행되면 우리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비단 옷감과 사철 신선한 과실을 더 풍부히 공급하게 될 것은 물론 식료가공 공업과 방직 공업을 위한 더 튼튼한 원료 기지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청 회의 결정이 수행되면 풍미가 향기롭기로 이름 난 우리의 과실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 많은 외화를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당이 북청 회의에서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또하나의 거대한 예비를 동원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력사적인 북청 회의 결정이 수행되여 북반부가 더욱 풍요한 지대로 되고 인민들이 더 잘 살게 되면 남반부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견인력이 일층 강화될 것이며 그들을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반미 구국 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불러 일으킬 것이다.

다음으로 북청 회의 결정은 아름다운 우리 조국 강산을 황금산으로 전변시키며 후손 만대에 귀중한 선물을 넘겨 주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의 또 하나의 구현으로 된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아름다운 조국의 강토와 모든 부원들을 충분히 리용하지 못하였으며 우리들에게 넘겨 줄 재부를 창조하지 못하였다. 우리 선조들이 자연 앞에 무력하였던 그러한 시기는 우리 나라에서 영원히 지나 갔다.

오늘 로동당 시대는 사회적 변혁의 시대이며 대자연을 정복 개조하는 시대이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 하에 우리 인민은 북청 회의 결정을 실천함으로써 과거 우리 선조들이 하지 못하였던 대자연 개조 사업을 수행하며 조선 인민이 길이길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풍요한 재부를 창조하게 된다. 이것은 곧 우리 나라에 착취 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풍만한 자원을 마음껏 개발함으로써 인민들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투쟁한 혁명 선렬들의 숭고한 리상이 더 훌륭히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 달리면서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 전체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재부를 창조하는 우리 시대의 영광이며 자랑이다》(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 (북청) 결정서 《전국의 산들을 개간하여 과수원과 상전을 대대적으로 확장할 데 대하여》).

또한 북청 회의는 우리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열어 놓았다.

김 일성 동지는 북청 회의에서 우리 인민들 속에서의 공산주의 교양 특히 자기 향토와 자기 조국을 사랑하며 그를 더욱 아름답게 꾸리는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애국주의 정신은 자기 동네를 사랑하며 자기 부락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데서 발현된다. 전국의 산들을 개간하여 과수원과 상전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우리의 조국 땅우에 오곡 백과 무르익고 비단 천 흘려 넘치는 지상 락원을 건설하는 숭고한 애국적 운동이다. 이는 우리 인민의 높은 애국주의 사상에 기초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또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 정신은 더욱 높이 배양되고 그들의 정치 도덕적 통일은 일층 공고화될 것이다.

북청 회의는 또한 우리 당 령도 예술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다.

제기된 문제를 성과 있게 해결하기 위하여 항상 일반적으로 사업을 포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 점을 뚫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전반적 고리들에서 새로운 혁신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우리 당 령도 예술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김 일성 동지는 금번의 북청 회의를 지도함에 있어서 '이러한 방법의 모범으로써 우리 일'군들을 교양하시였다. 즉 수상 동지는 이미 1957년 3월에 직접 북청군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산 경사지를

리용하여 과수 면적을 대대적으로 확장할 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으며 4년이 지난 오늘 그 경험이 훌륭히 창조되였을 때 바로 북청군 현지에서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고 그를 전 당에 일반화하는 조치를 취하시였다.

북청 회의는 또한 당면한 경제적 과업들을 전투적으로 해결하는 현지 당 회의의 모범으로 된다.

회의에 앞서 전체 회의 참가자들은 산 경사지들을 리용하여 과수를 잘 재배하고 있는 북청 군내 여러 농업 협동조합들에 대한 현지 견학과 과수 재배 경험자들과의 협의회를 가졌다. 이에 기초하여 진행된 상무 위원회 북청 회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회의 참가자들은 북청군의 경험을 본받아 그대로만 하면 얼마든지 과수원과 상전을 확장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갖게 되였다. 그리하여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리용하라는 당 정책을 관철함에 있어서 지난 기간 일부 일'군들 속에 남아 있던 보수주의와 소극성은 완전히 극복되였다.

전국의 산들을 개간하여 과수원과 상전을 대대적으로 확장할 데 대한 북청 회의 결정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대담하고도 적극적인 대책의 하나이다.

이것은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세련된 우리 당의 령도가 있으며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 단결이 있는 조건에서만 가능한 위대한 자연 개조 사업이다.

* *

전국의 산들을 개간하여 나라의 재부를 창조하는 대자연 개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하신 바와 같이 사회주의 애국주의는 우리 조국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항일 빨찌산들이 일제를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에서 싸워 이긴 것도, 우리 인민들이 미제를 반대하는 치렬한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한 것도 다 그들에게 자기 향토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주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였다.

혁명 선렬들과 우리 인민들이 피로써 찾고 지킨 조국 땅 우에 지상 락원을 꾸리는 영예로운 대자연 개조 사업도 그것을 푸는 고리는 대중의 애국주의 정신을 발양시키는 데 있다.

일제 때에는 나라 없고 주권이 없어 되는 대로 살아 왔지만 오늘은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는 바로 이 땅 우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무 하나, 흙 한 줌이라도 아끼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한 그루의 과수라도 더 심어 우리의 향토와 마을을 더 풍요하고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혁명 선렬들이 보천보의 흙을 배낭 속에 간직하고 다니면서 일제를 무찌르던 애국주의 정신으로 전체 근로자들을 교양하며 로동을 사랑하고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함으로써 전체 인민들이 영예로운 자연 개조 사업에 높은 애국적 열성을 가지고 한 사람같이 일떠 서도록 하는 것이다.

산들을 개간하여 과수원과 상전을 확장하는 사업은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광범히 전개되는 사업인 까닭에 전체 인민이 참가하는 애국적 운동으로 전개될 때에만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더우기 금년도에 알곡 100만 톤을 증산하는 것을 비롯하여 최근 년간에 농업 생산을 계속 장성시키면서 거대한 자연 개조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만큼 로동자, 사무원들과 그의 부양 가족들, 청년 학생들, 군무자, 내무원들이 대중적으로 이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북청 회의 결정이 나온 이후 전국의 각지에서는 과수원과 상전을 확장하는 사업이 전 인민적 운동으로 강력히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는 기관, 기업소들의 로동자, 사무원들과 농업 협동 조합원들, 각급 학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리하여 북청 회의 이후 1개월도 못되는 기간 (4월 5일~4월 30일)에만도 새로 약 1만 4,100 정보의 과수밭과 1,740여정보의 뽕밭이 각각 더 늘어 났다.

북청 회의 결정을 받들고 과수원과 상전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 인민적 운동을 조직 전개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종합 설계를 선행시키며 20도 이상의 산 경사지들을 적극 개간함으로써 과수원을 규모 있게 조성하는 것이다. 과수원 확장 사업에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묘목을 수종별, 품종 별로 생산 보장하여 과수의 구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당은 종래 사과 재배에만 편중하던 경향을 시정하고 금후에는 사과와 포도 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지대적 조건에 알맞게 앵두, 양벗, 살구, 복숭아, 추리, 배, 감 등 다양한 품종의 과실 생산을 확대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과수원과 상전을 새로 확장하는 사업과 함께 이미 조성해 놓은 과실나무와 뽕나무를 잘 가꾸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과수원의 대대적인 확장은 기술과 인재에 대한 요구를 비상히 높이고 있다. 북청군의 경험에 근거하여 산 경사지에서의 과수 재배를 위한 연구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는 동시에 이 부문 기술 교육망을 강화하고 경험 교환 등을 광범히 조직 진행함으로써 기술 인재들을 더 많이 양성해 내도록 하여야 한다.

거대한 자연 개조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금번의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북청 회의의 결정이 가지는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대중 속에 깊이 해설 침투시키며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시킴으로써

대중들이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자연 개조 사업에서 승리의 담보는 각급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이 대중의 높은 정치적 열성에 의거하여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완강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북청) 결정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이 과업은 어렵고 방대하지만 당 단체들이 발동되고 당원들이 앞장 서서 우리 혁명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는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시켜 모든 사람들을 조직 동원한다면 이를 능히 승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당은 오늘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대자연 개조 사업의 성과적 수행에로 전체 인민을 부르고 있다.

당의 부름에 따라 모두다 사회주의 애국주의 정신을 최대로 발휘함으로써 조국을 아름답고 부강한 나라로 전변시키는 력사적인 북청 회의 결정을 관철하는 영예로운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 항일 빨찌산들이 걸어 온 영광스러운 길

## 《항일 무장 투쟁 시기를 회상하여》를 읽고

신 구 현

림 춘추 저 《항일 무장 투쟁 시기를 회상하여》는 김 일성 동지의 탁월한 령도 하에 조직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의 전 력사적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은 항일 무장 투쟁 과정을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력사적으로 서술하면서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그 전우들의 혁명에 대한 충직성과 불굴의 혁명 정신을 진실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항일 무장 투쟁 시기를 회상하여》는 회상기라기보다는 우리 인민에게 안겨 준 영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의 산 기록이며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 연구의 귀중한 책으로 된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를 회상하여》는 추수 폭동 및 기민 폭동 등 동만 지방 조선 인민의 혁명적 진출과 1932년 봄 안도현 지방에서 반일 유격대의 영광스러운 첫 대오를 조직하던 때로부터 조선 인민 혁명군을 령솔하시고 김 일성 동지가 해방된 조국에 개선하기까지 실로 15 성상에 걸치는 항일 무장 투쟁의 전 력사적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이에는 혁명 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38편의 회상기들이 년대순으로 수록되여 있다.

여기에서 특히 저자가 주요시하고 분석과 서술에 크나큰 관심과 심혈을 기울인 것은 력사적인 중요 회의들과 그에서 결정된 전략 전술적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전투들이다. 고귀한 것으로는 매개 회의들에서 진술한 김 일성 동지의 보고, 연설, 교시의 주요 내용들과 그에서 천명된 전략 전술 등이 아주 상세하게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일 무장 투쟁 시기를 회상하여》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항일 무장 투쟁 력사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 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과 리론을 더욱 심오하게

연구 체득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조선 인민이 낳은 진정한 애국자이며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인 김 일성 동지의 영상을 더욱 똑똑히 그려 보게 할 것이다.

## 1

저자는 김 일성 동지의 탁월한 전략 전술과 혁명적 통찰력을 항일 무장 대오의 조직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일제의 파쑈적인 폭압 정치 하에서 조선 인민의 반제 반봉건 투쟁의 장기성과 간고성을 예견하고 무장한 적에게는 무장으로 대답하여야 한다는 무장 투쟁 로선을 제기하시였다. 그리고 무장 투쟁은 강한 적과 싸우는 조건 하에서 우선 유격 전쟁의 형식을 채용하여 자기의 기본 혁명 력량을 보존하면서 대량의 적을 소멸하는 기본 원칙에 립각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그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침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시였다.

즉 유격 전쟁은 광범한 근로 대중의 지지와 옹호가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대중에 대한 조직 사업과 정치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유격 전쟁에서 주요한 것은 강력한 당 조직에 의거하여 당적 핵심으로 대렬의 골간을 구성하며 그의 옳바른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저자는 김 일성 동지의 이 교시가 맑스-레닌주의 전략 전술의 창조적 적용의 모범이며 당시의 주객관적인 정치 정세와 적아 간의 력량 대비를 정확하게 타산한 투쟁 로선이였다는 것을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한 반일 유격대의 조직—이것은 조선 인민의 진정한 무장력의 창건으로 된다. 그리하여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무장 투쟁의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를 회상하여》는 1932년 여름 강도 일제와 그 주구들이 감행한 혁명적 농촌들에 대한 습격과 전대미문의 학살 만행에 의하여 조성된 정세로부터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 창설 문제가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고 이 혁명적인 과업이 김 일성 동지의 탁월한 전략 전술적 방침에 의하여 실현되였으며 항일 유격대는 창설된 유격 근거지에 지탱함으로써 강철의 대오로 강화 발전되였다는 것을 생동하게 보여 주고 있다.

저자는 우리 혁명 발전에서와 무장 투쟁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다홍왜 회의와 요영구 회의 등을 통하여 김 일성 동지의 고결한 혁명가적 풍모와 공산주의적 원칙성과 그의 전략 전술의 현명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홍왜 회의에서 일부 편협한 민족주의자들은 과거의 종파 분자들의 발언을 하등의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대로 접수하고 동만에서 《민생단》 발생의 근원이 조선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파쟁에서 온 것이라고 그릇되게 평가하면서 과거에 민족주의 운동과 혁명 운동에 참가한 사람은 모두 파쟁 분자들이여서 그들은 《민생단원》 혹은 그와 관련된 자들이라고 단정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동만 각 현 유격구 내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80~90%는 《민생단》에 참가하였거나 그의 련루자들이라고 규정하려 애썼다. 회의 분위기는 아주 엄엄하여 회의에 참가한 조선인 간부들은 《민생단》으로 불리우게 되지나 않을가 념려하여 감히 자기 견해를 주장하여 나서지 못하였다. 그러나 김 일성 동지는 반《민생단》 투쟁에 대한 이들의 그릇된 좌경적, 민족주의적 견해를 대담하게 비판하고 정확한 시정 대책을 제시하시였다.

김 일성 동지는 동만 지방의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80~90%가 《민생단》이라고 함부로 규정하려는 것은 주관주의적 판단이며 일제의 교활한 파괴 암해 책동에 대한 몰리해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조 중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동만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의 절대 다수를 《민생단》으로 만들 수 있는 오합지졸로 구성되여 있다는 말인가, 더우기 일부 동무들이 말한 바와 같이 동만의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80~90%가 《민생단》이라면 《민생단》에 포위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러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는가. 만일 80~90%는 고사하고 그의 10 분의 1인 8~9%가 《민생단》이라도 안심하고 이 자리에서 이러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동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80~90%가 《민생단》이라면 그들이 3~4년 동안 유격 근거지에서 엄동 설한에 집도 없이 입을 것을 입지 못하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서 일본 제국주의를 위하여 참았다는 말인가? 이는 삼척동자도 능히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회의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이 말씀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철저히 립각하였고 조선 혁명 운동과 조 중 량국 인민의 반일 무장 투쟁의 리해 관계를 절실하게 반영한 것이였다. 회의에서는 편협한 민족주의자들의 견해가 여지없이 론박당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말씀은 당시 혁명군 대오 내에서는 물론 유격 근거지 내의 혁명 군중들 속에서도 열렬한 지지를 불러 일으켰다.

1935년 봄에 소집된 요영구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고정된 유격 근거지를 해산하고 동북의 보다 광활한 지역은 물론 조선 내에까지 진출하여 보다 대규모적인 유격전을 전개할 것과 그와 관련된 제반 조치들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 일성 동지의 이 말씀은 혁명의 금후 발전을 위하여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방침으로 되였다.

이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반《민생단》 투쟁에서 좌경 기회주의를 결정

적으로 시정할 것을 주장하시였으며 반간첩 투쟁에서 발로된 좌우경적 편향들도 함께 시정할 데 대한 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력사적인 다홍왜 회의와 요영구 회의에서의 김 일성 동지의 말씀과 주장의 현명성은 조선 인민 혁명군의 북만 원정과 남만 및 국내 진출에서 그리고 1936년 2월 녕안현 남호두 소자지하 회의에서 더욱 확증되였다.

이 회의들을 통하여 무장 투쟁은 더욱 강화되였고 대렬의 통일 단결이 일층 공고화되였다.

1936년 2월에 있은 남호두 소자지하 회의와 1936년 5월에 소집된 무송현 동강 회의는 국제당과의 련계 하에 항일 무장 투쟁의 강화 발전과 당 창건 준비 및 반일 민족 통일 전선 결성을 위한 토의를 진행한 력사적 회의로서 우리 민족 해방 투쟁사에서 중요한 전환의 계기를 이룩하였다.

남호두 소자지하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당시 국내외 정세의 분석에 기초하여 일제 멸망의 불가피성을 론증하고 반일 민족 통일 전선 결성 및 조선에서 통일적인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들과 조선 인민 혁명군의 북부 국경 지대에로의 진출과 그 행동 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 후 이 회의 결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동강 회의는 김 일성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 인민 혁명군이 우리 나라 국경 지대에로 진출함과 관련하여 새로운 유격 근거지 창설 문제, 조국 광복회 창건과 그를 확대 강화할 데 대한 문제,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방침에 관한 문제 등 조선 혁명 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였다.

회의 결정에 의하여 1936년 5월 5일 김 일성 동지를 회장으로 하는 조국 광복회 창립이 선포되였으며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이 발표되였다.

김 일성 동지께서 친히 작성한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은 1930년대 조선의 혁명 정세와 사회 경제적 조건, 계급적 호상 관계들을 구체적으로 심오하게 분석한 토대 우에서 조선 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규정하고 그의 수행을 위한 전략 전술적 원칙들을 정확히 밝혀 준 력사적 문헌이다.

이 강령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나라 공산주의 대렬의 사상 의지의 통일은 일층 강화되였고 공산주의 령도 핵심의 주위에 각계 각층 인민들이 더욱 광범히 결속되였으며 혁명 력량의 결정적 우세를 보장할 수 있었다.

저자는 남호두 소자지하 회의와 동강 회의 과정 서술을 통하여 우리 당의 깊은 뿌리와 그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그의 전우들과 함께 항일 무장 투쟁의 첫 시기부터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준비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이미 1936년 남호두



소자지하 회의 당시에는 벌써 거대한 열매를 맺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저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벌써 수년 간의 가렬한 무장 투쟁 행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령도적 핵심이 이루어지게 되였고 또 공산주의 대오도 상당한 정도로 확대되게 되였다. 따라서 국제당도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사업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조선에서의 당 창건을 위한 사업을 더욱 급속히 추진시킬 데 대한 방향과 고무력을 주었다》 (143페지).

김 일성 동지는 1936년 국제당과의 련계 하에 남호두 소자지하 회의에서 당 창건 준비를 위한 방침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시였다:

…우리가 지도적 핵심을 튼튼히 형성한다면 그들을 골간으로 장차 당을 창건할 수 있고 그들의 주위에 대중을 묶어 세울 수도 있다. 즉 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공산주의적 지도 핵심은 어떠한 곤난한 환경에서도 굴함 없이 조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고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좌우경 기회주의와 종파주의 등을 극복하며 당을 창건함에 있어서 믿음직한 주추'돌로 될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당 창건을 준비함에 있어서 지도적 핵심 육성과 함께 당 단체를 조직 확대하기 위한 사업의 중요성과 그의 방침을 동강 회의에서 다시 한 번 명시하시였다. 즉 김 일성 동지는 유격 투쟁과 반일 혁명 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로동자, 농민, 혁명적 인테리들 중 선진 분자들을 당에 더 많이 흡수하여 당 조직을 계속 확대하며 이들의 당성 단련에 주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으며 특히 이러한 당 조직 사업을 유격 대오 내에서와 동북 일대에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내 깊이까지 침투하여 광범히 전개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동강 회의 결정에 의하여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북부 국경 지대인 압록강 연안의 장백, 림강, 무송, 안도 지방에 새로운 유격 근거지를 창설하고 이 근거지를 중심으로 하여 장백 일대와 국내 광범한 지역에 조국 광복회 조직망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지도하시였다. 즉 권 영벽, 마 동희 동지를 비롯한 수 많은 정치 공작원들을 파견하여 박 달, 박 금철 동지들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 국내 혁명 단체들을 조직하며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조직 사상적 준비를 적극 추진시켰다.

이렇듯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당 창건 준비를 위한 방침과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의하여 조선 공산주의 대렬의 조직적 골간은 이미 1930년대에 꾸려졌으며 혁명의 대중적 지반도 축성되였다. 바로 이 뿌리가 있었기에 조선 인민은 해방 후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정치적 수령인 영광스러운 우리 당을 창건할 수 있었으며

김 일성 동지와 그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 하에 내외의 원쑤들을 성과 있게 물리치고 나라의 지반을 반석같이 다졌으며 오늘과 같은 천리마 시대를 열어 놓을 수 있었다.

저자는 일제의 중국 관내 침공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새로운 정세에 대처하여 1937년 8월에 소집된 조선 인민 혁명군 제 6사 제 7련대 및 독립 려단의 지휘원, 병사 대회에서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 임무와 1938년 11월 몽강현 남패자 회의에서 제시한 대부대 작전의 전략적 방침, 제 2차 세계 대전 발발 후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전략적 방침으로서의 소부대 및 소조 활동에로의 이행 등의 분석을 통하여 김 일성 동지의 탁월한 전략 전술과 세련된 령도 예술을 심도 있게 보여 주고 있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안출된 이 전략 전술적 방침의 현명성은 그 후 력사적 사실들이 증명하고 있다.

1938년 남패자 회의 후 대부대 작전에 의한 섬멸전은 적들에게 만회할 수 없는 치명적인 패배를 주었으며 항일 무장 투쟁사에 위대한 승리의 해 1939년을 기록하게 하였다.

제 2차 세계 대전 발발 후 조성된 군사적 위기를 타개하며 도래할 대사변을 영접하기 위한 소부대 및 소조 활동에로의 이행은 실로 당시 정세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정확한 방침이였으며 대중을 새로운 혁명적 앙양에로 준비시키며 최후 결전을 승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혁명 력량의 보존을 위한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전략적 방침이였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를 회상하여》는 이렇듯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모든 전략 전술적 방침들은 혁명 발전의 소요 시기에 조성된 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혁명 승리의 전망을 예견한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의 모범이며 그의 탁월한 령도는 15 성상의 항일 무장 투쟁을 승리적으로 인도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투쟁 행정에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이 이룩되였다.

## 2

《항일 무장 투쟁 시기를 회상하여》는 김 일성 동지의 맑스-레닌주의 전략 전술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 업적과 공산주의적 혁명 정신, 사업 작풍과 사업 방법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항일 무장 대오의 조직,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에서의 인민 혁명 정부의 수립, 제반 사회 경제적 개혁의 실시, 당 창건 준비 및 조국 광복회의 확대 강화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 이룩된 고귀한 혁명 업적들과 경험들은 해방 후 우리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기초로, 민족 통일 전선, 인민 정권, 진정한 인민의 무장력 조직의 기초로 되였다.



이는 오늘을 예견한 김 일성 동지의 공산주의적 혁명 사상과 정신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를 회상하여》에 수록된 수 많은 대 소 사변들은 어느 것이나를 막론하고 김 일성 동지의 혁명 정신에 의하여 교양 육성되고 단련된 항일 빨찌산들의 고결한 자기 희생 정신과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항일 빨찌산들은 대 소 수 많은 전투들에서와 고난의 행군들에서 혁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아끼지 않으며 물불도 가리지 않고 뛰여 드는 불굴의 투지와 무비의 대담성과 완강성을 발휘하였다. 500 여명의 병력으로 2,000 여명이나 되는 적을 무찌른 시난차 전투에서 박 성철 중대와 지 병학, 김 인묵 등 지휘원 및 대원들이 발휘한 영용성, 단지 3명으로 적의 국경 초소를 점령한 한 창봉 습격조원들의 대담성과 용감성(290페지), 김 일 동지가 직접 책임진 정치 공작 소조의 활동(291~293페지)과 김 성국 등 3인 정찰 소조의 활동(297~301페지) 등의 실례들에서 우리는 그러한 혁명 정신을 더욱 생동하게 보게 된다.

항일 빨찌산들은 애국자인 동시에 철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자였다.

항일 빨찌산들은 조 중 인민의 공동의 원쑤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항상 중국 형제들과의 친선 단결과 전투적 우의를 강화하기에 백방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제의 하싼호, 할힌골 침공과 관련하여 무장으로 쏘련을 옹호하자는 구호 밑에 대규모적인 배후 교란 작전을 진행하였다. 유명한 대사하, 대장강, 한총령, 황구령 전투들은 이를 사실로써 생동하게 보여 주고 있다.

혁명적 군중 관점과 인민적 사업 작풍으로 무장한 항일 빨찌산들은 항상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옹호를 받았다. 바로 이 지지와 옹호가 있었기 때문에 항일 빨찌산들은 주권이 없이도 15 성상을 싸워 빛나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를 회상하여》는 이에 대한 감동적인 사실을 수 많이 기록하고 있다. 소복호라는 큰 호수'가 80 먹은 늙은 어부의 일화이며(183~184페지), 륙과송 및 쟈신즈 전투와 로동자들의 집단적 참군(256~261페지) 등은 그러한 실례로 된다.

항일 빨찌산들은 김 일성 동지의 혁명적 사업 방법의 모범을 항상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구현하였다. 유격대 내에서나 인민 대중 속에서 지어는 적후 공작에서까지 항상 인내성 있는 설복과 교양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업 방법은 유격대원들의 자각성을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민 대중을 항일 구국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 일으켰다.

김 일성 동지의 혁명적 락관주의와 혁명적 동지애는 항일 빨찌산들의 구감으로 되였으며 그들의 불굴의 혁명적 의지를 굳게 하였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를 회상하여》에서 보여 준 항일 빨찌산들의 공산주의적 혁명 정신, 사업 방법 및 사업 작풍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그들처럼 사고하며 행동하게 하며 청산리 정신의 구현에로 줄달음 치게 한다.

* *

오늘 조선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 뿐만 아니라 수백만 대중을 교양하고 개조하면서 천리마의 기세로 전진하고 있다.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에서 대중의 의식 개변처럼 힘든 일은 없다. 그러나 우리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김 일성 동지가 령도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지도 밑에 이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우리 당의 붉은 전사이며 인간 개조의 교사인 천리마 기수의 대렬은 날로 급속히 확대되여 가고 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 땅 우에는 공산주의적인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 군중 로선의 승리이며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이 낳은 위대한 열매이다. 실로 혁명 전통 교양은 우리 나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데 있어서 위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결코 우연하지 않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은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을 어떤 리념 또는 도덕적 원리에 대한 개념으로써가 아니라 항일 빨찌산들이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싸우며 생활한 구체적 사실로써 보여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적 혁명 정신은 누구에게나 생동하게 접수될 수 있고 위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혁명 전통은 보통의 조건에서가 아니라 류례 없는 고난과 최악의 악조건을 다 겪은 장기적이고 가렬한 투쟁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일 빨찌산들이 발휘한 백절 불굴의 공산주의적 투지와 혁명 정신은 모든 사람들의 심장에 파고 들어 사람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면 과거에 혁명 선렬들이 어떻게 간난 신고를 무릅쓰고 일제를 반대하여 싸웠는가를 회상하고 거기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있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를 회상하여》를 비롯한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는 우리 근로자들로 하여금 어떤 곤난과 애로에도 굴하지 않는 강의성, 조국과 인민 앞에서의 영웅적인 희생 정신으로 충만되게 한다.

또한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이 위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오늘 우리 인민이 무한히 존경하고 사랑하며 흠모하는 김 일성 동지와 그 전우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사랑, 존경, 신뢰—바로 이것이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혁명 전통을 자기의 것으로 무조건 접수하게 하는 바탕으로 되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처럼 일하고 생활하며 그들처럼 투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혁명 전통에서 배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당 중앙 위원회 편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당원들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깊이 연구 체득하며 그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전체 당원들은 우리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를 위한 투쟁과 당의 공고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업적들과 고귀한 투쟁 경험을 깊이 체득하며 어떠한 곤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백절 불굴의 투쟁 정신,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조국에 대한 사랑, 혁명 동지에 대한 우애심, 혁명의 원쑤와 계급의 원쑤를 누구보다도 증오하며 인민의 생명 재산을 자기의 목숨으로 보호할 줄 아는 고상한 혁명 정신으로 자체를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자기의 실생활에서 구현하여야 한다》(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29~30페지).

사회주의 생산 관계의 전일적 확립과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의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의 강화는 인민 대중의 정치 도덕적 풍모에서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혁명 전통의 불꽃은 날이 갈수록 생산과 건설,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를 회상하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 전통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킴에 있어서 큰 역할을 놀게 될 것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 책을 연구하면서 당과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래일의 거창한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 미제 예속 하의 남조선 민족 공업의 전면적 파탄

김 영 기

## 1

광명과 암흑, 번영과 파산—이것은 오늘 조선의 북과 남의 대조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자립적인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축성된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우리 시대의 기념비인 웅대하고 현대적인 비날론 공장과 같은 대규모의 공장, 기업소들이 자체의 힘으로 건설되고 있으나 미제의 예속 하에 있는 남조선에서는 민족 공업이 전면적으로 파탄 상태에 놓여 있다.

남조선 민족 공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 파국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미제가 16년 간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군사 기지화 정책을 실시한 데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경제 침략 정책과 남조선 민족 공업이 직면하고 있는 파국적 사태의 본질을 분석하시면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식민지적 략탈과 군사화 정책으로 인하여 남조선 경제는 여지 없이 파괴되였다.

남조선은 미국의 상품 시장으로 되였으며 민족 산업은 미국 독점 자본과 극소수 예속 자본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계속 파산되고 있다》(《조선 인민의 민족적 명절 8.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라고 하시였다.

일반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 그 나라의 자립적 경제 토대를 말살하며 자기의 정치 경제적 지배와 략탈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침략 정책을 실시한다.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도 바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로골적이며 파렴치한 형태를 띠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과거 일제와는 달리 거대한 자본 및 농산 원료 수출국이라는 자체의 경제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강점 첫 시기부터 남조선을 군사 기지화하며 상품 시장화하는 데 몰두하고 일체 기존 시설들을 파괴하기에 광분하였다.

미제는 강점 첫 시기에는 주로 남조선 경제가 가지는 구조상, 지역상 편파성을 적극 조장 리용하는 방향에서 식민지 공업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남조선 공업을 북반부의 중공업으로부터 분리시켜 그의 파탄 과정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기존 공업 시설들을 직접 파괴 략탈하였으며 그 일부는 《적산 불하》라는 명목 하에 일부 예속 자본가 집단을 육성하는 밑천으로 리용하였다.



이 행정에서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지배권을 확립하고 그 후 그것을 더욱 확대 강화하는 길에 들어 섰다.

특히 정전 이후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지배와 략탈을 강화할 것을 타산하면서 침략적인 《자유 경제 정책》을 더욱 악랄하게 추구하고 있다.

《자유 경제 정책》을 통하여 미제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은 첫째로, 재정 금융을 《긴축》시킴으로써 방대한 군사비 지출로 인하여 초래된 악성 인프레를 《조절》하며 둘째로, 괴뢰 정부의 군사 경찰비 조달을 위하여 경제적 투자와 융자를 억제하고 조세 수탈과 저임금, 저미'가로 착취를 강화하며 세째로, 경제 분야에서 《자유 경쟁》 조건을 조장하고 민족 자본의 몰락 과정을 촉진시키고 예속 자본의 자본 축적을 증대시키며 네째로, 일체《관영》 기업의 《민영화》와 략탈적 《경영 합리화》로 착취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 독점 자본의 침투에 유리한 경제적 조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최근 시기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경제 침략 정책의 중심은 남조선 경제를 자기의 군사화 정책에 복종시키면서 《자유 경쟁》을 조장시키고 착취 체계를 강화하여 미국 독점 사자본의 유리한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돌려지고 있다.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이와 같은 경제 침략의 주요 공간은 소위 《원조》이다.

미제의 소위 《원조》는 제 2차 대전 이후 국제 무대에 등장한 새로운 식민주의 형태이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타국에 대한 미국의 소위 〈경제 원조〉가 그 나라에 대한 군사 정치적 지배를 목적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거니와 남조선에서 그것은 가장 로골적이고 철면피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선집, 제 4권, 512~513페지).

미제는 남조선에서 소위 《원조》를 미끼로 괴뢰 정부와의 사이에 일련의 예속적인 협정을 체결하고 그의 예속 조항에 근거하여 남조선 경제를 좌지우지하면서 남조선 민족 공업을 미국 군사 경제의 부속물로 전락시키고 있다.

미제는 소위 《원조》 물자와 자금의 배정, 《특혜 융자》, 《감세》 혹은 《면세》 등 온갖 방법으로 극소수 예속 자본가 집단을 육성하는 반면에 민족 자본의 발전을 백방으로 억제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일방적인 부등가 무역으로 남조선 민족 공업의 시장을 거의 점탈하고 자기들이 반입하는 각종 잉여 상품(남조선의 년간 소요 주요 원자재의 85% 이상에 해당)의 판매 가격을 계통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예속 자본가들에게 넘겨 주어 그들의 중간 모리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그들은 재정 신용면에 있어서도 예속 자본가에게 온갖 《특혜》 융자를 주고 있는 반면에 일반 중 소 기업가에 대하

여는 자금 대부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으며 심지어 명색 뿐인 《중 소 기업 자금》의 지출까지도 그 대부분을 예속 자본가에게 대부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남조선의 중 소 기업가들은 월 리자 20%나 되는 고리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오직 그들에게 차례지고 있는 것은 무서운 세금 증하 뿐이다.

결과에 남조선에서 중 소 기업은 파탄되고 《매판 관료 자본》으로 불리우는 예속 자본가 집단이 형성되여 그의 경제적 지반은 강화되고 있다.

남조선 공업 시설과 자금의 대부분은 극소수 예속 자본가들이 경영하는 기업체들에 집중되고 있는바 남조선 전체 면방추의 74%와 제분 시설 능력의 67%를 각각 7개의 방직 공장과 4개의 제분 공장이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이러한 사정을 잘 말 해 준다.

이와는 반대로 원래 자본 토대가 미약한 남조선 민족 공업은 미국 독점 자본과 예속 자본가들의 2중적 압박 하에서 급속히 몰락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매판 관료 자본》의 형성과 그의 부패성 그리고 민족 공업의 파탄은 또한 전체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반작용하여 경제적 혼란과 침체를 조장함으로써 마침내 경제 전반의 파멸 과정을 촉진시키고 있다.

## 2

해방 후 북반부의 중공업 지대와 분리된 남조선 경제는 미국 독점 자본에 예속되였고 민족 공업은 질식 상태에 빠졌다.

남조선의 공업은 그의 생산 수준이 일제 시기에 비하여도 3분의 2로 감퇴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민족 경제의 토대로 될 수 있는 기간 공업의 파탄은 더욱 극심하다.

남북 간의 경제적 분리와 기간 공업의 전면적 파탄으로 공업의 생산 구조상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예속성이 새로운 내용과 형식에서 더욱 확대 심화되였다.

남조선 공업의 부문별 구조는 전형적인 비자립성과 식민지적 편파성으로써 특징 지어진다.

공업 발전의 기초로 되는 기간 공업, 그 중에서도 로동 도구를 생산하는 금속 가공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보잘 것 없다. 공식 통계에 의하더라도 금속 가공 공업이 전체 가공 공업 생산액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내외에 불과한데 그나마도 사소한 부속품이나 소공구 등 극히 부차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데 불과하다.

이에 반하여 군수 조달을 위한 식료 및 섬유 공업의 생산액은 전체 가공 공업에서 근 70%에 달한다.

이것은 남조선 공업이 미국 군사 공업과 농업의 예속물로 전락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의 생산 구조가 더욱더 기형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남조선 공업은 자체의 민족 경제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제의 식민지적 략탈과 군사화 정책의 수행과 관련된 다음 세 가지 부류에서 겨우 잔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남조선의 지하 자원과 농산 자원의 략탈을 위한 원료 및 반제품 생산 특히는 원료 생산 부문들이다. 이 부문에는 전략 자원인 중석광을 비롯하여 흑연, 동광, 연광, 철광 등의 채굴 공업과 생사 생산 부문이 속한다. 둘째로 미국 잉여 농산물과 원자재의 수입에 의존하여 현지 군수 조달품을 생산하는 방직 공업과 제분업, 제당업 및 주정 공업 등 일련의 가공 공업 부문이다. 세째로 미제와 괴뢰 도당의 군사적 수요의 현지 해결과 관련된 전력 및 석탄 생산 부문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일련의 채취 공업과 소비품 생산이 겨우 지속되고 있으나 자립적 경제 발전의 토대로 될 수 있는 기간 공업과 특히는 민족 공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 소 기업은 전면적으로 급속히 파탄되고 있다.

남조선 전체 기업소 수의 99%, 종업원 수의 81%, 생산액에 있어서 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 소 기업은 《거의 페문 직전》(《산업 경제 신문》 1960년 10월 18일)에 처해 있다. 중 소 광산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전체 광산의 90%도 휴광되고 있다.

미제는 금년에 들어 와서도 소위 《경제의 자유화》를 표방하여 환률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인상된 딸라의 수준으로



철도, 전기 등 각종 료금을 재조정하였는바 이는 그렇지 않아도 자금난, 판로난 등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의 전면적 파탄을 촉진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이미 4,000 여개의 크고 작은 공장들이 파산한 데 뒤이어 새 해에 들어 와서 방추 1만 개를 가진 《국안 방직 공장》을 비롯하여 《대한 제분 공장》 등 수 많은 공장들이 파산하였으며 나머지 공장들도 같은 운명을 강요당하고 있다.

남조선의 방직 공장들과 제분 공장들 중 예속 자본이 경영하는 대기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년내로 파산을 면치 못할 형편에 놓여 있다.

이밖에 고무 공장을 비롯하여 모든 공장들이 조업 시간을 다시금 축감하고 있다.

현 시기 남조선 경제 발전에서 특징적인 현상은 이제는 경제 파국이 모든 경제 분야와 전체 부문을 포괄하고 있는 그것이다.

민족 공업 분야에서 볼때도 파국은 절정에 달하고 있다.

남조선의 민족 공업은 남조선 출판물들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마침내 《8.15 이후 최악의 고비》에 이르고 있다.

남조선 민족 공업을 오늘과 같은 질식 상태에 몰아 넣었으며 민족 경제의 터전을 허물어뜨려 남조선 경제를 통털어 미국 독점 자본의 부속물로 전락시킨 기본 요인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그들의 소위 《원

조》를 미끼로 하여 감행한 식민지적 략탈과 군사화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 민족 공업이 직면한 이 엄중한 사태가 그 어떤 개별적 인물의 《잘못》에 의하여 초래된 우연한 현상인 것 같이 묘사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들은 작년 4월 리 승만 괴뢰 정권이 타도된 후 자기의 식민지 통치의 경제적 지반이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게 되자 모든 경제 파국의 원인을 괴뢰 도당이 《원조》를 잘못《리용》한 데 있는듯이 떠벌리면서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기도하는 한편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을 무마할 목적으로 《경제 자립》을 표방하여 나섰다.

미제와 장 면 도당이 류포하고 있는 《자립 경제 확립》의 기만적 정체는 이른바 《중 소 기업 육성 사업》과 《전원 개발 사업》 등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장 면 도당이 내세우고 있는 《중 소 기업 육성 사업》이란 중 소 기업에 대한 자금, 원료, 동력 등의 공급 사업을 개선하여 《기업의 창달》과 《고용 증대》를 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 면 도당이 집권한 이후 9개월 이상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도록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되여 오던 《중 소 기업 은행》하나 창설되지 않았으며 원료, 동력 등의 공급 사업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미제와 장 면 도당이 떠벌리고 있는 《전원 개발 사업》 역시 그러한바 남조선에서 발전량은 늘기는 커녕 도리여 줄어 들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기에 남조선의 한 신문도 장 면 도당의 소위 《경제 제 1주의》를 야유하여 《알고 보니 한 장의 멀정한 공수표》에 불과하였다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제 상전의 침략 정책에 추종하여 외세에 매여 달리고 있는 한에 있어서 《자립 경제 확립》이란 기만에 불과하다.

실지로 장 면 도당은 남조선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 파멸적 사태를 수습할 데 대한 성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능히 감당할 만한 밑천도 능력도 없다.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반드시 중공업의 토대가 있어야 하는데 남조선은 그나마의 약간한 기존 시설마저 파괴 당하여 기계, 설비, 원자재, 동력 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자립적 발전을 위한 자금이 없고 경제 건설을 위한 기술도 또한 결핍되여 있다.

남조선의 경제를 부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고리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토대가 미약한 남조선의 민족 경제를 외래 독점 자본의 침습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나라의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여 자체의 생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남조선에서 식민지적 략탈과 군사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리해 관계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와 장 면 도당은 《경제 자립》이란 기만적 구호밑에 《한미 간의 뉴대의 강화》를 고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지어 일본, 서독 등으로부터 독점 자본을 끌어 들이려는 범죄적 책동까지 감행하고 있다.

일본 《국회 의원단》이 침략의 척후병으로 지난 5월 6일 남조선에 침입하여 장 면 괴뢰 도당과 막후 교섭을 진행하며 남조선의 전력, 석탄 부문에 대한 투자 기도를 로골화하고 있는 것 등은 그의 구체적인 례증으로 된다.

조성된 정세로 미루어 남조선의 경제 전망은 실로 암담하다.

앞으로 《자유 경제 정책》이란 구호 하에 남조선 경제에 대한 미제의 략탈과 군사화 정책이 더욱 강화되며 또 일본 독점 자본까지 침투할 때 그렇지 않아도 허물어져 가는 남조선의 민족 공업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리라는 것은 불을 보는 것 보다도 뻔하다.

남조선 경제의 앞날은 남조선의 한 대학 교수까지도 《우리 앞에는 암흑 이외에 아무 것도 없다. 아주 어둡고 컴컴하고 실망 뿐이고 한 줄기 희망조차 없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을 정도로 절망적이다.

### 3

제반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남조선 민족 공업은 현 조건 즉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국토 량단이 지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 강점이 계속되고 우리 나라가 분렬되여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누구가 어떠한 방법으로 정권에 들어 앉는다 하더라도 남조선 경제의 파국적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남조선 민족 공업을 소생시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출로는 김 일성 동지가 8.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 보고에서 제시한 조국 통일과 민족 번영의 위대한 강령과 이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한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8차 회의의 제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는 강력한 중공업 기지와 경공업 기지를 가진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축성되여 있고 10만의 대기술 부대와 경제 건설의 풍부한 경험이 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인민 경제 토대와 풍부한 경험은 남조선 공업을 복구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정적 밑천으로 된다.

우리 당은 공장 하나 발전소 하나 건설함에 있어서도 북반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 뿐만 아니라 항상 남조선 인민들의 래일을 념두에 두었다.

오늘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가 달성한 찬란한 성과 속에는 남조선 인민들이 누리게 될 몫이 들어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 간의 접촉과 교류는 더는 지체될 수 없는 긴절하고도 성숙된 문제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제 강점 하의 16년 간에 걸친 생활 체험을 통하여 이 진리를 자각하기 시작한 남조선 각계 각층 인민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 간의 접촉과 교류를 요구하여 대중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민족 자주적 평화 통일의 원칙 하에 남조선의 광범한 정당, 사회 단체와 개별적 인사들로 조직된 《민족 자주 통일 중앙 협의회》는 《남북 교류는 남한 경제 부흥, 생활 향상을 위하여》 지체 없이 《단행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대학교》 학생들은 4월 19일 《외국 세력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고 채택한 《선언문》과 《결의문》에서 《조국의 자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며》 《남북 조선 간의 문화 교류, 서신 왕래, 경제 교류》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하였으며 한 학생 지도자는 《문전 거러지에게 주는 것과 같은 미국의 원조》를 배격하면서 《남조선의 쌀 및 면화와 북조선의 전력 교환을 위한 경제 협조》를 주장하였다.

뒤이어 5월 4일 《서울 대학교 민족 통일 련맹》은 그의 성명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남북 학도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면서 남북 학도 간의 기자 교류, 학술 토론 대회, 예술 및 학문 창작의 교류, 체육 대회 등을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다.

남조선 각 계층 인민들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 협상과 교류를 요구하는 이 강력한 투쟁은 3천만의 최대의 념원인 조국의 통일과 남조선 인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의의 부르짖음이며 애국적 투쟁이다.

남북 조선 인민들의 단합된 힘과 투쟁은 그 어떠한 장애도 물리치고 민족적 념원을 실현하고야 말 것이다.

---

# 미제의 그 어떤 무력 간섭도 큐바와 라오스 인민을 굴복시킬 수 없다

최근 큐바, 라오스 문제는 전 세계 인민들의 관심과 여론의 초점으로 되고 있다.

미제는 직접적인 무력 간섭으로써 이 나라 인민들의 자유와 독립을 압살하려고 악착스럽게 달라 붙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진영과 세계 평화 력량은 미제의 침략 행위를 견결히 규탄하고 두 나라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열렬히 지지 성원하여 주고 있다. 세계 인민들의 이러한 압력과 이 나라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미제의 침략 책동과 무력 행사는 걸음마다 파탄되고 있다.

큐바와 라오스 문제는 미제가 평화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최대의 적이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 준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함부로 행동하던 시기는 지나 갔다. 그러나 궁지에 빠진 제국주의자들은 단말마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따라서 제국주의자들의 일거 일동에 대하여 인민들은 더욱더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단결하여 끝까지 싸워야만 그들과의 투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 큐바 인민은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고수하고 있다

지난 4월 17일 미제의 고용병들과 모험가들이 미국 군함들과 항공대의 엄호하에 큐바에 대하여 침공을 감행하였으나 큐바 혁명군과 민병들의 공격에 의하여 불과 72시간도 못 되는 사이에 완전히 격멸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큐바에 대한 공개적인 무력 침공을 통하여 큐바 혁명을 말살하고 이 나라에 다시금 워싱톤의 리익에 충실히 복무하는 괴뢰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큐바 인민을 지난 날의 그 암흑의 생활로 몰아 넣을 수 있으리라고 망상하였으며 큐바 혁명의 영향하에 라틴 아메리카 전 대륙에서 괭배해지는 반미, 반제 인민 운동을 멈춰 세우려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심히 오산하였다.

영웅의 섬 큐바의 인민들과 무장력은 피델 카스트로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 정부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미제가 장기간에 걸쳐 준비하여 온 침략을 반대하여 분연히 궐기하였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피로써 사수하였다.

큐바에 대한 미제의 무력 침략은 큐바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일 뿐만 아니라 큐바를 자기의 모범으로 보고 있는 전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과 그리고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세계 평화의 보장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에 대한 도전이였다.

전 세계 각국에서 《큐바에서 손을 떼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이 울렸으며 미제 날강도를 규탄하고 싸우는 큐바 인민에 대한 굳은 련대성이 표시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예로부터 안틸 제도의 진주알이라고 불리우는 큐바는 니켈, 철, 망간, 동, 석탄, 석유 등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사탕 생산에서 세계 제 1위(년산 550만 톤)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풍부한 자원은 장구한 기간 미제의 략탈 대상으로 되였으며 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예속화 및 략탈 정책으로 기아와 빈궁 속에서 신음하였다.

이미 1898년에 미국-서반아 전쟁의 결과 큐바는 미제의 점령 하에 들어 갔으며 1952년에는 철두철미 미국 독점체들의 리익에 복무하는 바티스타 친미 독재 정권이 수립됨으로써 큐바는 미제의 리윤 획득의 원천지로, 완전한 식민지로, 류혈적 암흑의 땅으로 전변되였다.

1958년에만 하여도 큐바에 투입된 미국 개인 자본의 투하 총액은 무려 10억 딸라에 달하였으며 큐바에서 짜낸 미제의 리윤은 1952~1957년에 7억 5천만 딸라나 되였다. 미제는 큐바 사탕 생산의 54%, 전력 생산의 거의 전부와 통신 수단을 장악하였고 석유, 니켈, 철광의 채취 및 가공을 독점하였으며 큐바 대외 무역에서 수출의 3분의 2, 수입의 4분의 3을 장악하였다.

미제의 가혹한 식민지적 착취 및 략탈과 바티스타 정권의 폐로 통치는 큐바 인민으로 하여금 더는 그대로 살수 없게 하였으며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에로 궐기시켰다.

1956년 12월 탁월한 애국자 피델 카스트로를 비롯한 청년 애국자들이 멕시코로부터 큐바에 상륙한 후 시에라 마에트스라산에서 올린 무장 투쟁의 봉화는 큐바를 혁명과 동란의 섬으로 화하게 하였다.

1958년 12월 피델 카스트로의 유격대는 산타크라라 격전에서 바티스타정부군의 주력 부대를 격파하고 큐바 인민사회당이 조직한 하바나 로동자 총 파업 및 시민들의 봉기와의 긴밀한 련계 하에 1959년 1월 1일 하바나에 돌입하여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반제 인민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였다.

큐바 인민 혁명의 승리와 그 후에 큐바에서 실시된 인민적, 반제 반봉건적 민주 개혁들은 주권을 자기 수중에 틀어 쥐고 공장, 기업소 및 땅의 주인이 된 인민들이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다.

1960년 말까지 미국인 소유 토지를 포함하여 25만 카발레리아(한 카발레리아는 약 13.4헥터)의 토지가 몰수되고 총 경지의 70%에 달하는 46만 5,000 카발레리아의 농경지에 토지 개혁이 실시되였다. 전국적으로 약 200개의 인민 농장과 12만 5,000명의 농업 로동자들이 망라된 620개의 사탕 수수 생산 협동조합들이 조직되였다. 그리고 2만 명의 농민들에게 토지 소유권이 발급되고 온갖 형태의 지대가 철폐되였으며 지난 3월 24일에는 국유지 또는 토지 개혁 전국 위원회 소유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2카발레리아의 토지를 무상 분배할 데 대한 결정이 발표되였다.



로동자들의 처지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큐바 혁명 정부는 1960년 8월에 약 10억 딸라에 해당하는 미국인 재산을 몰수하였고 10월에는 12억 딸라에 해당하는 169개의 미국인 소유 회사, 공장, 은행 지점들을 국유화하였다. 1960년 말까지 도합 800개의 미국인 소유 기업소들이 몰수되였다. 이리하여 큐바에서 미국 독점 자본의 지반은 뿌리가 뽑히였다.

이 밖에도 수 많은 인민 상점들이 조직되고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이 활발하며 교육 및 문화도 개화 발전하고 있다.

또한 큐바 혁명 정부는 미국과의 온갖 예속적인 조약들을 페기하는 한편 우리 나라를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 및 통상 관계를 수립하고 친선 관계를 도모하며 과학 문화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큐바 혁명은 둘째 단계 즉 토지 개혁을 끝까지 수행하며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고 혁명을 더욱 전진시키는 단계에 들어 섰다. 이 과업은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큐바 수상 피델 카스트로는 현재 큐바 혁명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근절이 혁명의 리념이라고 강조하였다.

큐바 혁명의 이 승리적 전진은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나갈 길을 밝혀 주는 등대로 되고 있으며 그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의 《뒤'동산》으로부터 반제 반독재 투쟁의 전초선으로 화하였다.

지난 해 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볼리비아, 베네주엘라, 하이티, 도미니카 등에서 반미 반정부 투쟁이 전례 없이 고조되였으며 지금 전 대륙에서 혁명 투쟁의 불'길은 날과 더불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큐바 혁명이 걸어 온 길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모든 인민들의 표본으로 되고 있다. 바로 여기에 큐바 혁명 정부가 미제의 눈에 든 가시로서 최대의 증오를 사고 있는 리유가 있다. 이리하여 미제는 큐바 혁명을 압살하려고 악착스럽게 달려 들었다.

이미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큐바에 대한 경제 봉쇄로부터 무력적 위협에 이르는 각종 책동으로써 큐바를 굴복시키려고 발악하였으나 걸음마다 파탄되였다.

아이젠하워 대신 대통령 감투를 쓰고 백악관에 들어 앉은 케네디는 더욱 악랄하고 교활한 수'법으로써 큐바 혁명을 말살하려고 혈안이 되여 왔다.

큐바에 대한 케네디 행정부의 침략 책동은 아이젠하워나 케네디나 그놈이 그놈이며 미제의 침략적 본성이 결코 변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케네디는 이미 작년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연설에서 큐바에 대한 침략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금년 1월 《일반 교서》에서 큐바에 수립된 민주주의적 사회 질서를 《국제 국내적으로 되는 폭정 통치》라고 중

상하면서 미국은 《미주에서의 이와 같은 일체의 외국 통치와 폭정을 제거할 것을 맹세한다》고 떠벌렸다.

큐바를 침략하려는 흉계를 실현함에 있어서 미제는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을 꾸몄는바 그것은 우선 5월에 퀴토에서 미주 국가 기구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큐바 혁명 정부를 전복하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주 국가 기구에 망라된 추종 국가들을 동원하여 큐바를 공격케 하려는 흉악 무도한 것이였다.

이러한 침략적 흉계를 실현하려고 날뛰면서 워싱톤의 전쟁 상습범들은 미국에 도망쳐 간 큐바 반혁명 분자들의 두목을 규합하여 이른바 《혁명 위원회》를 조작하고 이들로 하여금 큐바 정부에 《선전 포고》를 하는 도전 행위를 감행케 하였다. 미제는 이 《혁명 위원회》를 《림시 정부》로 개편하여 큐바 국내에 《진출》시키고 그를 승인하며 그로 하여금 미국에 《원조》를 요청케 함으로써 큐바 혁명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길을 개척하려 하였다.

이와 함께 미제는 미국과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있는 반혁명 분자들을 훈련시키고 미국 무기를 쥐여 줌으로써 침략의 전초병으로 삼으려 하였다.

미제는 또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원조》와 《개발》을 위한 《10개 항목 계획》을 내놓음으로써 일련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자기의 침략 정책에 얽어 매여 놓는 한편 이 나라들로 하여금 큐바와 외교 관계를 단절케 함으로써 큐바를 고립시키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이러한 온갖 흉악한 책동은 수치스러운 실패로 끝났다.

큐바 인민의 영웅적 투쟁, 사회주의 국가들과 기타 세계 각국 사회계의 적극적인 지지 성원에 의하여 큐바는 승리하였다.

《큐바 인민의 승리는 제국주의 전쟁 세력에 대한 평화 애호 력량의 또 하나의 승리이다》(김 일성, 《화학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이 승리는 제국주의 억압에서 해방된 인민들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손에 무기를 잡고 일어 설 때 그 어떠한 힘도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 주었다.

그것은 또한 강력한 세계 사회주의 체제의 원조와 지지 그리고 기타 세계 각국의 평화 애호 력량의 련대성이 있는 조건 하에서 어떤 나라도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성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으며 그 투쟁의 열매를 능히 고수할 수 있다는 것을 빛나게 실증하였다.

양키 제국주의의 범죄적 음모가 조선에서처럼 큐바에서도 분쇄된 것은 미제의 커다란 군사적 및 정치 도덕적 참패로 된다. 멕시코 신문 《라 프렌사》가 그것을 《케네디와 미국의 대몰락》이라고 규정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미국 정책은 다시 추켜 서지 못할 정도로 땅에 떨어져 버렸다》고 지적한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제국주의자들이 약소 국가를 마음대로 침략하고 략탈하던 시기는 지나 갔다.

큐바에 대한 무력 침공이 실패로 돌



아 간 후 케네디는 이에서 교훈을 찾지 않고 새로운 침략 행동을 감행하려고 의연 책동하고 있다.

케네디와 러스크 등 워싱톤의 전쟁 상인들은 《미국이 큐바를 내버리지 않을 것》이라느니 반혁명 분자들에게 《원조를 계속할 것》이라느니 떠벌렸으며 미국 군함들을 대서양 연안에 집결시키고 큐바에 있는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에 미국 병력을 증강하는 한편 반혁명 분자들을 계속 훈련시키는 등 큐바에 대한 새로운 침략 계획을 꾸미고 있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자기의 군사적 및 정치 도덕적 참패를 수습해 보려는 단말마적 발악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발악은 그 누구도 위협할 수 없다. 큐바 수상 카스트로는 《우리는 만일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피 한방울까지 싸울 용의를 가지고 있으며 또 싸울 것이다》라고 성명하였다. 큐바 인민은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기 위하여 항상 준비되여 있다.

전 세계 인민들은 싸우는 큐바의 편에 굳건히 서 있으며 큐바 인민들과의 전투적 련대성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조선 인민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큐바에 대한 미제의 침략 행동을 견결히 규탄할 것이며 큐바 인민의 영웅적 투쟁을 열렬히 지지 성원할 것이다.

만일 미 제국주의자들이 분별 없이 다시금 침략 행동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불피코 미제의 자살 행위로 끝나고 말 것이다.

큐바 혁명의 승리적인 전진을 가로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라틴 아메리카가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 나 자유와 광명의 대륙으로 되는 력사적 추세를 그 무엇으로써도 멈춰 세울 수 없다.

## 라오스에서 미제의 무력 간섭은 즉시 중지되여야 한다

미제의 흉악한 무장 간섭을 반대하는 라오스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아세아에서의 평화를 위한 투쟁의 중요한 일환이다.

라오스 문제의 발생은 미제가 이 나라 인민을 예속시키고 라오스를 사회주의 진영 특히는 중국과 민주 월남을 반대하는 침략 기지로 리용하기 위하여 이 나라의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해 나선 데 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곳에서 그러한 바와 같이 여기서도 미제는 평화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라오스 인민의 최대의 적으로 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반나 푸마 정부는 1960년 8월 9일 콩 레 대위가 지도하는 애국적 군인들이 인민들의 지지 하에 친미적인 솜사니트 괴뢰 정권을 전복한 후에 수립되였다.

수반나 푸마 정부는 수립된 첫날부터 평화와 중립과 민족적 화목의 정책을 선포하였다. 푸마 정부는 미제의 악랄한 침략 정책의 산물이였던, 정부군과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 간의 분쟁을 회담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파테트 라오 부대 및 라오스 애국당 대표와

의 협상의 길에 들어 섰다. 협상의 결과 1960년 11월 18일에 애국당 대표를 포함하는 련립 정부를 수립할 데 대한 합의가 달성되였다. 푸마 정부는 대외 관계에서도 진보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는바 1960년 10월에는 쏘련과 대사를 교환하였으며 중국 및 민주 월남과 선린 관계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푸마 정부는 라오스를 독자적인 발전의 길로 점차 인도해 나갔다.

애국당을 비롯한 라오스의 각계 각층 애국 력량이 푸마 정부의 정책과 활동을 환영 지지하였다.

사태의 이와 같은 발전은 미제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다. 라오스가 독자적인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미제에게 있어서 사회주의 나라 특히 중국과 민주 월남에 대한 침략적 발판의 상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동남 아세아 전체에 걸친 침략 계획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제가 1957년 11월에 애국당 대표의 참가 하에 수립된 수반나 푸마의 련합 정부를 1958년 8월에 전복시키고 사나니코네 친미 매국 정권을 조작한 것도, 그 후 끊임 없이 괴뢰들을 교체하여 보다 《강력한 손》의 소유자를 정권에 앉혀 라오스를 더욱 적극적인 추종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애써 온 것도 수포로 돌아 가게 되였다.

라오스 사태의 발전은 또한 타이, 남부 월남 등에 거대한 영향이 미쳐 그러지 않아도 풍전 등화의 처지에 있는 미제 괴뢰들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였다. 이것은 나아가서 동남 아세아 침략 기구—세아토의 괴멸을 급속히 촉진시킬 수 있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미제는 청소한 푸마 정부를 교살할 목적으로 라오스에 대한 더 로골적이고 철면피한 무력 침략으로 나왔다. 여기서도 큐바를 반대하는 무력 침공에서 표현되였던 미제의 침략적 수법의 그 악랄성과 교활성을 본다.

만일 8월 9일 정변 이전까지는 비엔티안 주재 미국 대사관이 중심이 되여 은폐된 정치적 음모의 방법으로 라오스를 집어 삼키려 하였다면 그 이후 시기는 무력 간섭을 포함한 공공연한 침략 행동으로 넘어 갔다.

작년 8월 9일 정변 및 수반나 푸마 정부 수립 이후 미제의 라오스 내정 간섭 책동은 대체로 세 단계를 거치고 있다.

처음에 미제는 노사방 도당을 푸마 정부에 참가시켜 이 정부를 《우익화》함으로써 자기에게 불리한 사태 발전을 억제해 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정치, 경제, 군사적 압력이 가해졌다. 정치적으로는 라오스가 《공산화》한다고 허위 선전을 하면서 타이, 남부 월남, 비률빈 등 졸개 국가들로 하여금《묵과하지 않겠다》는 위협을 가하게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라오스에 대한 《원조》를 중지하고 경제적 봉쇄를 가하였다. 군사적으로는 노사방 도당에게 각종 미국제 살인 무기를 공급하여 줌으로써 반란을 준비시키고 세아토 회의를 빈번히 열어 라오스에의 《출병》 소동을 벌려 놓았다.

그 후 미제는 분움-노사방 《정부》를 조작(1960년 12월 12일)하고 이 반란 집단을 라오스의 《합법적 정부》로 내세워 라오스 내정에 대한 무력 간섭의 길을 열어 놓으며 푸마 정부를 완전히 전복하려 하였다. 여기서 미제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탈취에 주력을 경주하였다. 수도의 탈취는 유명무실한 노사방 도당의 《정부》를 대내외적으로 선전하는 심리적 효과를 주로 노린 것이였다. 1960년 12월 13일에 개시된 수도 탈취전에는 미군 장교의 직접적 지휘 하에 노사방 도당, 타이, 비률빈, 남부 월남 및 장 개석 도당 병사들을 포함한 7개 대대 병력이 동원되였다.

노사방 반란 도당을 《합법적 정부》로 국제적으로 인정시키기 위하여 미제는 금년 1월 19일 라오스 국왕으로 하여금 《라오스의 진정한 중립을 다시 한번 선포》케 하고 《캄보쟈, 비르마, 말라이가 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라오스에 와서 이 나라가… 오로지 평화만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선언을 발표케 하였다.

다음으로 미제는 지금 직접적인 무장 간섭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3월 하순부터 5월 초에 걸쳐 외교 및 군부의 고위 지도자들과 유력한 국회 의원들과 빈번한 비밀 회의를 가지고 라오스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 무력 간섭 문제를 토의하였다. 3월 23일 에이피 통신 보도는 《만약 세아토가 주저하는 경우 미국은 단독으로 또는 규합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동맹국들과 함께 라오스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4월 19일 노사방 도당은 라오스에 대규모의 《군사 고문단》을 조작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였으며 미 국무성은 즉시 이에 《동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라오스 주재 미 《군사 원조 고문단》 단장 잭슨 보일의 언명에 의하면 증가된 《고문단》 성원은 《대대급에 내려 가서 사업하며 필요하다면 더 아래까지 내려 갈 것》이라 한다.

라오스에 대한 직접적 무력 간섭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얻기 위하여 미제는 라오스 문제에 관한 14개국 회의 소집을 반대하고 정화만을 소란스럽게 떠들어댔다. 이에 대하여 4월 8일 《라오스의 소리》 방송은 다음과 같이 론평하였다. 《미국이 지금 정화를 요란스럽게 떠들며 국제 회의 소집을 지연시키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 빠진 분움—노사방 도당에게 숨 돌릴 사이를 주며 라오스에 대한 간섭과 침략을 계속 강화하려는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라오스 문제는 미제의 악랄한 침략 정책에 의하여 생겨 난 것이다. 미제의 간섭이 없고 그를 추종하고 있는 세아토 괴뢰 국가들의 간섭이 없었더라면 그 어떤 라오스 문제도 없었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미제의 철면피한 간섭을 저지시키며 력사의 발전을 꺼꾸로 돌리려는 인간 쓰레기들의 부질없는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는 데 있다.

《라오스 인민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여야 하며 라오스에서 평화의 회복을 위하여 미 제국주의와 그 추종자들의 무력 간섭이 즉시 중지되여야 한다》 (김 일성, 《화학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라오스 인민들은 단결을 강화하면서

반미 투쟁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군과 애국당 군대의 무장력을 통일시키기 위한 전국 군사 위원회가 조직되였으며 해방된 히엥 쾅주에서 련립 정부가 수립되였다. 라오스 전국 방방곡곡에서 민병들이 노사방 반란 도당 군대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라오스의 애국 력량은 노사방 도당이 반란을 일으킨 후 몇 달도 못되는 동안에 삼 누아주, 퐁 살리주, 히엥 쾅주, 자르 평원 등 국내의 주요 전략적 지역들과 지점들을 해방하였으며 국내 3분의 2를 통제하고 있다. 왕도 루앙 프라방은 애국적 무력에 의하여 포위되였으며 비엔티안, 사반나케트 등 반란 도당의 소굴은 위태롭게 되였다. 사태는 서방 통신들도 《만약 지금 곧 전투를 그만 두지 않는다면 왕국군(노사방 도당의 군대)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친서방 정부(노사방 도당의 정부)의 존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4, 15, 에이피). 《왕국군이 파데트 라오군을 막아 낼 수 있다는 하등의 근거도 잡을 수 없으며 날이 갈수록 파데트 라오군은 자기들의 지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4, 15, 유피아이)고 보도하게쯤 되였다. 미국 《워싱톤 스타》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케네디는 《미국 무력을 직접 전투에 개입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회담하는 수 밖에 없는 진퇴 량난의 기로에 서 있다》.

바로 이처럼 라오스의 애국적 인민의 무장력은 라오스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틀어 쥐고 승리의 진군을 계속하고 있으며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라오스의 애국적 력량의 단결의 강화와 그 무장력의 적극적인 진출,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과 세계 평화 력량의 지지 성원은 라오스에서 미제의 침략적 계획을 걸음마다 파탄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최근 미제는 정화를 애걸하며 국제 회의 소집에 대한 동의를 운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라오스의 애국 력량과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은 미제로 하여금 제네바 확대 회의 소집에 동의케 함으로써 커다란 승리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라오스 인민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지 않으며 라오스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근의 제반 사실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미제는 군사적 간섭에서 당한 실패를 만회하며 즉시 정화로서 시간을 얻어 더욱 로골적인 무력 간섭을 감행할 온갖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것은 최근 미제가 라오스에 《군사 고문단》을 설치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제네바 회의 진행을 각종 구실로 태공한 데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미제로 하여금 직접적 무력 간섭 계획을 포기케 하고 국제 회의 개최에 동의케 한 것도, 이 회의에서 미제의 음흉한 정치적 책동을 분쇄하고 라오스 애국 력량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도 요는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 여하에 달려 있다.

14개국이 참가하는 제네바 확대 회의가 소집되게 됨으로써 라오스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마련되였다. 조선 인민은 이 회의가 미제의 온갖 흉계를 분쇄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을 열렬히 희망한다.

문제는 제네바 회의에서 미제가 감행할 수 있는 온갖 지연 전술을 분쇄하는 데 있다. 력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미제는 그 어느 때에도 자진하여 침략 계획을 포기한 적이 없다. 조선 정전 담판이 그것을 명확히 실증하였다.



지금 라오스의 애국적 인민들은 제네바 회의에서 미제로 하여금 라오스 애국 력량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도록 자체의 력량을 부단히 강화하고 있으며 미제와 노사방 도당의 온갖 군사적 책동에 대하여서도 최대의 경각성을 견지하고 그들의 일거 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라오스의 애국 력량과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은 미제의 어떠한 직접적 무력 간섭도, 정치적 흉계도 분쇄하고 라오스에서 진정한 평화, 중립 및 민족적 화목을 반드시 실현시키고야 말 것이다.

우리 조선 인민은 언제나 싸우는 라오스 인민과 함께 있으며 공동의 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그들과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라오스 문제의 교훈은 미제가 자유로운 자주적 발전을 념원하는 모든 인민의 흉악한 원쑤이며 오직 인민들의 견결한 투쟁만이 이 원쑤의 온갖 침략적 야망을 분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 준 데 있다.

라오스에서 미제의 무력 간섭은 즉시 중지되여야 한다. 라오스 문제는 라오스 인민 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하며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허용되여서는 안 된다.

라오스 문제에 관한 제네바 국제 회의는 이 나라에 대한 미제의 간섭을 규탄하고 라오스의 평화, 독립, 민족적 화목과 중립을 엄격히 보장할 데 대한 합의를 달성하여야 한다. 라오스 문제 해결의 관건은 여기에 있다.

고 근 화

**근로자** 제 5 호 (루계 186)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　행 • 1961년 5월 15일　　　인　쇄 • 1961년 5 월 10 일

ㄱ—32231　　　값 50전

# 서 적 안 내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 자료

## 1920~1930 년대의 조선 사회 경제 형편과 계급 관계

4×6판, 161 페지,
발행 부수 30,000부

이 책은 일제 통치 하, 1920~1930년대 우리 나라의 사회 경제 형편은 어떠하였으며 계급 관계는 어떻게 변화 발전하였는가를 보여 주는 풍부한 자료들을 인용하면서 체계 있게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1920년대의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특징과 함께 이 시기 조선 농촌에서의 계급 관계와 그 모순의 확대,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 공업의 발전과 그로 인한 민족 자본과의 관계, 조선 로동 계급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서술 되여 있으며 조선에서 로동 운동이 급속히 발전 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경제적 근거가 해명 되여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1930년대 이후 시기에 와서 일제가 대륙 침략을 준비하기 위하여 조선에서 군수 공업을 강화하고 로동자, 농민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와 략탈을 감행한 결과 로동자, 농민들로 하여금 일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한 사회 경제적 형편이 상세하게 서술 되여 있다.

---

##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계속 이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

4×6판, 예정 페지 60페지
발행 부수 30,000부

이 책은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 참고 자료로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반제 반 봉건적 민주 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이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취급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일제 통치 하 우리 나라에서는 중요하게 어떠한 모순들이 존재하였으며 이 모순 해결을 위하여 우리 나라 로동자, 농민들 앞에 제기된 혁명 과업들은 무엇이였는가가 해명 되여 있다. 그리고 이 혁명 과업들이 해방 후 조선 로동당의 령도하에 어떻게 해결되였는가가 밝혀져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반제 반 봉건적 민주 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계속 이행의 합법칙성과 우리 당에 의한 그의 실현이 간명하게 해명되여 있다.

이상 서적들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

1961년 5월